

2기

선교와 사랑의 현장을 찾아서

(1991~1999)



I. 개관

1. 주요 연혁

■ 1991년(표어: 선교와 사랑의 현장)

- 1월 1일 박금녀 전도사 전임전도사로 부임
- 1월 20일 헌금 바구니를 없애고 입장 시 헌금함에 헌금
- 2월 10일 농촌선교위원회 조직
- 2월 10일 지역선교위원회 조직
- 11월 30일 양인석 전도사 사임

■ 1992년(표어: 선교와 사랑의 현장)

- 1월 12일 직원 선택 내규 제정
- 3월 28일 65세 이상 노인 초청 경로잔치
- 4월 23일 최만규 전도사 목사안수 후 부목사로 시무 시작
- 4월 30일 지역선교위원회 주관 노인초청 경로잔치(200명 참석)
- 7월 10일 여전도회 연합수련회 시작(계월교회당)
- 10월 1일 이경 전도사 교육전도사로 부임

■ 1993년(표어: 선교와 사랑의 현장)

어머니성가대 활동 시작

- 1월 1일 지역선교위원회를 지역사랑위원회로 명칭 변경
- 2월 7일, 3월 14일 지역사회 봉사 정책 수립을 위한 세미나
- 2월 14일 교육관 건축을 위한 건축위원회 조직(위원장: 안송엽)
- 2월 16일 담임목사 사택 백제세원아파트 304호로 이거
- 3월 13일 지역사회 봉사 정책 수립을 위한 선진교회 탐방
- 4월 26일 지역사회 봉사 정책 수립을 위한 지역 관계자 간담회
- 5월 15일 ‘금암2동과 함께하는 제1회 금암지역 노인초청경로잔치’(2006년 14회까지 지속)
- 5월 23일 3차 임직예식(집사 6인, 권사 3인)
- 6월 5일 강림교회 노인학교 개교
- 9월 5일 조혜숙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여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위한 지역사회조사 실시(1994년까지)
- 10월 10일 교육관 입당
- 10월 13일 무료공부방 시작(1994년 10월 2일 폐지)
- 10월 17일 주일 점심식사 정례화
- 11월 30일 박금녀 전도사 사임
- 12월 5일 교회 관리인 채용(임대영 집사)
- 12월 5일 최만규 목사 완주군 화산면 종리교회 담임목사로 부임
- 12월 5일 서경자 전도사 전임전도사로 부임

■ 1994년(표어: 선교와 사랑의 현장)

- 1월 1일 강림교회 노인학교, 전주강림교회 노인대학으로 변경
- 1월 2일 온성진 전도사, 동선옥 전도사 전임전도사로 부임
- 1월 16일 현악부 조직

8월 30일 이경 전도사 사임
12월 4~6일 제1회 청년문화제

■ 1995년(표어: 선교와 사랑의 현장)

1월 29일 러시아에 모스크바 제7교회(아르베긴 젠야 전도사) 개척
3월 12일 현재 교회의 앞마당인 1581-16번지 대지 445㎡(135평)를 매입하여
4월 29일 전북노회교회유지재단에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이전 등기
4월 29일 예배당 헌당
4월 29일 4차 임직예식(장로 4인, 집사 10인, 권사 15인)
5월 21일 청년주일 성년식 행사 시작
9월 10일 당회원들의 선교헌금으로 러시아 남부 머즈독 지역에 뿌라홀라드
니교회 개척

■ 1996년(표어: 선교와 사랑의 현장)

추석과 설 명절의 가정예배 모범예식 제시 시작
1월 1일 재가복지 및 목회간호활동 시작
1월 7일 주일예배를 1부 예배(8시 30분)와 2부 예배(11시)로 분리
3월 11일 파란하늘선교원 개원(원장: 원지현)
3월 12일 온성진 전도사 목사안수 후 부목사로 시무 시작
3월 17일 경배와찬양단 활동 시작
5월 30일 금암동 1581-13,14,15,19의 4필지 1,126.6㎡(341평)를 1581-13 단일
번지로 합병하고, 전북노회교회유지재단에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이전 등기
9월 9일 한일신학대학교, 전북사회선교협의회와 협력으로 ‘한글학교’ 개
설(2001년 11월 18일 종료)
10월 6일~11월 10일 “21세기를 맞는 강림교회 만들기” 세미나

■ 1997년(표어: 선교와 사랑의 현장)

- 교회 직원 보수 규정 제정
- 예수병원 암환자 후원회에 선교비 지원 시작
- 1월 5일 주일 3부 예배 개설(오후 2시, 청년 중심)
- 5월 13일 강림교회 부설 과란하늘어린이집 정식 인가

■ 1998년(표어: 선교와 사랑의 현장)

- 2월 1일 김주옥 전도사 교육전도사로 부임
- 10월 18일 추수감사절을 추석과 연계하여 지키기 시작

■ 1999년(표어: 선교와 사랑의 현장)

- 1월 1일 의료선교위원회 조직
- 7월 방송실 설치 및 음향 시설 전면 교체
- 8월 23일 전국남선교회연합회 총회에서 모범남선교회상 수상
- 11월 25일 안창엽 목사 소천

2. 상황 읽기

1) 이 시기를 규정하는 교회의 상황

1991년 교회 창립 10주년 사업으로 시작된 ‘선교와 사랑의 현장’ 운동이 이 시기 전반을 이끌었다. 그리고 1999년 안창엽 목사의 갑작스러운 소천과 함께 이 한 시기가 마감되었다. 이 시기 내내 “선교와 사랑의 현장”이 교회의 실천 표어로 사용되었다. 1990년 연말에 창립 10주년에 대한 준비 차원에서 추진하기 시작한 “선교와

사랑의 현장 갖기” 사업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지향점으로 자리 잡은 것이었다. 해를 거듭함에 따라 “선교와 사랑의 현장”은 점점 더 구체화되고 체계화되면서, 교회의 각급 조직과 예산 그리고 활동에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선교의 현장’은 농촌 선교와 해외 선교로 구체화되었고, 농촌선교위원회로 조직화되었으며, 이는 각 자치기관들의 조직과 활동에도 영향을 주었다. ‘사랑의 현장’은 지역사회에 관한 관심으로 구체화되어 지역사랑위원회(처음에는 지역선교위원회)로 조직화되었으며, 지역 경로잔치와 노인대학, 과란하늘어린이집의 설립과 운영, 암환자들에 대한 돌봄 활동 등으로 확장되었다. 1999년에는 재가복지, 목회간호 암선교, 의료선교 활동을 통합하여 의료선교위원회를 조직하였다.

그사이에 교회는 3차 임직예식을 통해 안수집사와 권사를 추가로 세우고(1993년 5월 23일), 교육관을 건축하였다(1993년 10월 10일 입당). 1995년 4월 29일에는 예배당 헌당예식과 함께 4명의 장로와 10명의 안수집사, 15명의 권사를 세우는 4차 임직예식을 행하였다. 이 시기부터는 각종 기록물과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남기기 시작하였다. 당회록과 제직회의록이 잘 남겨졌고, 후보가 연도별로 제본되었다(1993년분 제외). 1990년부터 작성되기 시작한 교회일지도 상당 부분 남아있다. 또한 일부의 행사 및 교회학교, 청년부 활동자료들도 보존되었다. 1991년 창립 10주년을 기점으로 하여 교회의 역사 자료를 남기는 일에 관심이 자라나면서 이루어진 발전으로 볼 수 있다. 1998년부터 20년사 편찬을 위한 사진과 자료 수집을 시작하기도 하였다.

2) 교회 밖 상황

이 시기 교회 밖의 역사는 극과 극을 오갔다. 1992년 대선을 통해 등장한 김영삼 정부는 하나회 척결로 군사쿠데타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부동산 실명제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를 내란수괴로 단죄하는 등 문민정부로서의 개혁

을 단행하였다. 1995년부터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시작되었고, 1997년 대선을 통해 김대중 정부가 탄생함으로써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까지 이루어지는 등 민주주의의 열매를 하나둘 맺어가는 중이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1991년 9월 17일 남북한 동시 각기 유엔 가입이 이루어졌다. 1991년 12월 13일에는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가 만들어져, 1992년 2월 19일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함께 발효되었다. 그 후 북한 핵무기 개발 문제가 불거져 주춤했으나, 2차 북미회담(1994.9.23~10.18)을 통해 핵문제에 관한 최종합의가 이루어지자 대북 경수로 지원 문제로 남북관계에 활로가 뚫리기 시작하였다.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주선으로 남북 간 첫 정상회담이 합의되기도 했다(1994.7.25~27 예정). 그러나 김일성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정상회담이 불발되고 이어진 조문 파동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다. 이후,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힘입어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2000년 6월 13~15일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회담에서 채택 발표된 <6.15 남북 공동선언>에 근거한 경제협력 사업과 인도적 교류 사업이 발전해 나갈 수 있었다.

이 시기는 그동안 날림으로 진행된 개발독재의 민낯이 드러나는 시기이기도 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그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1994년 10월 21일 아침 7시 38분에 발생하여 32명의 사망자와 17명의 부상자를 남긴 성수대교 붕괴 사고 현장이 텔레비전 영상으로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이는 시민들에게, ‘한강 철교’로 상징되는 근대 산업 개발 신화에 균열이 가고 있음을 목격하는 경험이 되었다. 그로부터 채 1년이 되지 않은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발생하여 502명이 죽고, 6명이 실종되었으며 937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를 계기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건축된 고층 건물 전반에 대한 안전 평가가 시행되었는데, 그 결과 전체 고층 건물의 1/7(14.3%)은 개축이 필요한 상태였고, 전체 건물의 80%는 크게 수리할 부분이 있었으며, 2%만이 안전한 상태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다.

한편 정부는 1994년 말부터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그로 인해 자본의 힘은 점점 강해지고, 노동의 위상은 약화되었다. 기업과 국가 경제는 계속 성장하면서도 노동자들은 일자리의 질과 안정성이 점점 약화되는 것을 경험해야 했고, 빈부의 격차는 심해졌다. 1997년 11월 18일 IMF(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요청함으로써 공식화한 IMF 체제 아래에서, 한국 사회는 결국 신자유주의 시대 자본들의 놀이터가 되고 말았다. 노동의 안정성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게 되었고, 국내의 기업들이 국제적 투기 자본들의 먹잇감이 되기 시작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가운데 그것을 극복해내는 것이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3) 보편교회의 상황과 전주강림교회의 응답

1980년대까지 한국교회에서 역사 참여 활동은 주로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를 중심으로 한 진보진영의 몫이었다. 1960년대부터 산업 선교, 도시빈민 선교 등 민중 선교 활동을 이어왔고, 그것이 1970년대의 인권-민주화운동으로 이어졌으며, 1980년대에는 민중교회운동, 기독교평화통일운동, 환경운동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던 중 1989년 한경직 등 이복 출신 보수 교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를 결성하여 한국교회 보수진영의 정치 참여를 주도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초반에는 NCCK가 주도하던 한반도 통일을 위한 ‘1995년 회년운동’에 보수진영이 동참하면서 1991년 ‘통일회년사업국’이라는 범교단적 조직을 만들고 진보와 보수가 협력하였다. 1992년 12월 9일에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나눔운동’(남북나눔운동)이 태동하였는데, 이는 1990년 한기총이 시작한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에 진보 진영이 동참하면서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사업을 남북 화해 운동으로 심화한 한국교회 보수-진보 간의 협력 사업이었다.

잠시간 이어졌던 이런 협력의 과정을 뒤로 한 채, 한국교회의 진보진영은 급속

히 쇠퇴하고 보수진영은 정치적 목소리를 점점 키워나가기 시작하였다. 한국교회 보수진영은 먼저 신학계 내의 진보적 짝을 잘라내면서 교계 내에서의 패권을 장악해 나갔다. 1991년 캔버라 WCC 총회에서 있었던 정현경 교수의 발표를 ‘다원주의’, ‘혼합주의’ 등으로 정죄하고, 1992년 감리교 총회에서 감신대 학장 변선환을 출교 시킨 일 등이 그 신호탄이었다. 이후로 한국 신학계는 교권을 틀어쥔 보수진영의 눈치를 살피면서, 점차 대형교회의 자본력에 잠식되어 갔다. ‘기독교청년운동’이라는 역사참여 활동으로 대변되던 교회 청년들의 활동은 CCC 등 보수적 복음주의 색채를 띤 대학선교단체들의 득세와 온누리교회를 선봉으로 한 ‘경배와 찬양 운동’의 확산에 점차 그 자리를 내주었다. 그에 따라 교회 내 구성원들 간의 동질성은 점점 강화되고 활기가 높아지는 듯하였으나, 교회 밖과의 소통은 점차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1992년 극에 달했던 ‘다미선교회’ (다미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는 뜻)의 시한부 종말론 운동은 한국교회가 비상식적 세계관을 소유하고 있다는 인식을 한국 사회 안에 강력하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일들과 맞물리며 1990년대의 한국교회는 청년→청소년→어린이 순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감소세로 돌아서기 시작하였다. 이런 교회 내적 요인과 함께 경제의 발전에 따른 여가와 문화 활동 그리고 신자유주의 체제로 인해 극심해지는 경쟁 체제 등의 외적 요인 역시 한국교회를 역성장의 시대로 내몰았다. 이와 같은 한국 사회와 한국교회의 형세 속에서, 이 시기의 전주강림교회는 ‘선교와 사랑의 현장 운동’을 통해, 시들어가는 농촌교회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로 파고들어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였다. 청년들은 역사참여 활동과 괴리되지 않는 신앙을 정립하고 역사의 현장에서 힘껏 신앙을 표출하였으며, 온 교회가 신앙을 내실화하는 일에 힘을 쏟았다.

3. 중요한 이정표들

1) 선교와 사랑의 현장을 향한 발걸음

교회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있던 1990년, 전주강림교회는 교회가 지향해야 할 교회상을 정립하려 애쓰고 있었다. 1990년 11월 11일 당회는 안창엽 목사가 제안한 “선교와 사랑의 현장 갖기”에 대해 제직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1월 18일 “창립 10주년 사업” 토의를 위한 제직 모임이 소집되었다. 이 모임에서는 안창엽 목사의 제안과 제직들의 토론 및 의견수렴을 거쳐 “선교와 사랑의 현장”을 전주강림교회가 지향해나갈 목회 방향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예정통합 교단 내 선교신학의 변화와 맞물린 것이었다. 그간 세계교회의 에큐메니컬운동과 선교학계에서 논의되던 ‘통전적 선교의 신학’이 1980년대 들어 한국교회에 소개되기 시작하였고, 그 영향이 1986년 작성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에도 담기게 되었다. 이러한 신학의 변화가 교단 내에서 선교실천의 다양성을 만들기 시작했다. 1986년 71회 총회가 “사랑의 현장 갖기” 운동을 제안하고 추진한 것도 그중 하나였다. 전주강림교회는 이러한 교단총회의 정책적 추진을 개교회의 목회 현장으로 끌어들이며, 선교실천의 범위를 넓히면서 목회와 선교의 지향점으로 삼게 된 것이었다.

안창엽 목사는 노회의 총대로 꾸준히 교단총회에 참석하면서 그 변화의 흐름을 일찍부터 체득하고 있었다. 일례로, 1986년 5월 25일 후보 표지에는 “새로운 선교와 교회구조”라는 제목으로 장신대 선교학 교수 서정운의 글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는 세계교회 에큐메니컬운동에서 논의된 통전적 선교¹ 실천을 위한 교회의 선

1 20세기 초반까지의 선교 이해는 ‘비기독교인을 기독교인으로 개종시켜서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정도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세계교회는 선교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에 이르게 되었다. 선교란,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총체적인 행동’임을 알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선교란 일차적

교 구조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이었다. 즉 교단총회의 새로운 선교신학과 사랑의 현장 갖기 운동의 신학적 기초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선교와 사랑의 현장”이라는 슬로건은, 복음을 통전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통전적 선교를 실천해내는 교회가 되겠다는 다짐이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선교와 사랑의 현장이라는 슬로건을 제시한 1991년의 첫 주일 설교에서도 이 점을 확인할 수가 있다.

1991년 1월 6일 주일예배 설교 요약

“선교와 사랑의 현장”

요한복음 13장 31~35절

30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된다고 해도 전문가들은 91년을 정치면에서나 경제면에서 어둡게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에는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민주화가 정착되기를 바라고, 모두 같이 잘 사는 경제구조를 바라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91년이 창립 10주년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이 땅에 그 뜻을 이루어 보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려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활동을 선교라고 합니다. 한때는 선교를 해외에서의 전도활동으로 말하기도 했고, 또 전도의 현대어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활

으로 하나님의 행동이고, 교회의 선교는 그 하나님의 선교에 응답하고 참여하는 작은 부분에 불과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선교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바뀌자, 교회가 실천해야 할 선교의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복음 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인권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 다짐을 극복하고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일, 배제와 차별을 끝내고 더불어 사는 삶을 만들어내는 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태계를 돌보는 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들 간의 협력과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일 등이 모두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다. 선교의 과제 들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 모든 선교 과제들을 아울러 실천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다양한 선교의 과제들을 아울러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자 노력하는 선교를 ‘통전적 선교’(統全的 宣敎, integral mission)라고 부른다.

동하시는 전부를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려는 우선적이고 긴급한 일은,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시는 전도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모스가 외쳤던 정의구현도, 주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하신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도,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것도,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선교의 차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 참으로 중요한 것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주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랑을 하려고 많이 노력한 줄 압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즉 이웃에게 보다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보다 책임을 느끼며, 더 많이 아픔을 함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마음껏 어린 냥하고 놀아야 하는데 식구들을 책임져야 할 소년소녀 가장들, 자식들과 떨어져 외롭게 사는 노인들, 질병에 시달리는 이웃들, 민주화 과정에서 고통당하는 형제들에게 관심과 아픔을 나눔과 기도 드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실 것입니다.

선교와 사랑의 현장을 향한 발걸음은 즉각적으로 시작되었다. 우선은, 농촌 교회들과의 협력선교가 먼저 앞장서기 시작하였다. 이전까지 교회는, 1986월 2월 20일 장수군 천천면 신기교회를 시작으로 1986년 12월 20일 순창군 유등면 반석교회, 1988년 1월 1일 남원군 운봉면 매요교회, 1989년 1월 1일부터 진안군 물곡교회, 1990년 1월 1일 진안 성운교회, 1990년 7월 1일부터 완주군 피목교회로 농촌지역 교회와의 협력 관계를 늘려오던 참이었다. 1991년에는 순창군 인계면 인계제일교회, 장수군 산서면 평촌교회, 남원군 금지면 금지교회, 이리시 동산동 엘림교회 등 4개 교회가 한꺼번에 추가되었다. 2월 10일에는 ‘선교와 사랑의 현장’ 갖기 운동 차원에서 농촌 선교 활동을 이끌어 나갈 조직으로 농촌선교위원회가 꾸려졌다. 1991년이 지나가기 전에 진안 용담교회와 진안 와룡교회까지 자매교회 목록에 포함되었다. 이후 농촌자매교회의 숫자가 해마다 증가하였으며, 교류 방문과 자매교회 목회자 초청

세미나 등을 통해 교류와 협력의 질도 높여나갔다.

1991년 2월 10일 지역선교위원회(후에 지역사랑위원회로 명칭 변경)의 조직과 함께 지역사회 봉사 활동도 체계적으로 발전해 나갔다. 1989년 6월 24일 제2여전도회 주최로 지역 경로잔치가 열린 바 있었는데, 1992년 4월 30일에는 지역선교위원회 주관으로 노인초청 경로잔치를 열었다. 1993년에는 지역선교위원회의 명칭을 지역사랑위원회로 변경하고, 지역사회 사업에 관한 세미나와 선진교회 탐방 그리고 금암2동 동장과 노인회장 등 지역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전문사회복지사를 통한 지역사회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활동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후 교회의 지역사회 활동은 노인대학, 청소년 공부방, 한글학교, 파란하늘어린이집 등으로 확장되었다. 지역사랑위원회 사업으로 시작된 의료재가복지 활동, 예수병원 암환자 후원 활동, 기타 의료 선교 활동 등은 1999년 의료선교위원회로 분립하였다.

해외 선교 활동 역시 활성화되었다. 1988년 태국의 팻담교회, 1990년 뉴질랜드 신종혁 선교사에 이어 1991년 10월 6일부터 필리핀 크리스천 아두안교회(안토니오 오라에 전도사), 1993년 10월 22일부터 남미 볼리비아 브니엘교회를 지원하였다. 1995년 1월 29일에는 러시아에 모스크바 제7교회(아르베긴 젠야 전도사)를 개척하였으며, 같은 해 9월 10일에는 당회원들의 선교헌금으로 러시아 남부 머즈독지역에 뿌라홀라드니 교회를 개척하였다. 네팔신학교(이춘심 선교사)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졌다.

2) 3차, 4차 임직예식 및 예배당 봉헌

이 시기에는 두 차례의 임직예식이 있었다. 3차, 4차 임직예식을 통해 세워진 일꾼들은 1992년 1월 12일 제정된 ‘직원 선택 내규’에 따라, 구역과 자치기관 그리고 당회의 추천으로 당회의 공천을 받아 공동의회의 투표를 통해 선출되었다. 3차 임직예식은 6명의 안수집사와 3명의 권사를 세웠다. 1993년 2월 17일 당회에서 후보를 공천하였고, 2월 21일 공동의회에서 선출한 후, 같은 해 5월 23일 임직하였다. 안



3차 임직예식(1993년 5월 23일)

창엽 목사가 인도한 임직예식의 기도는 최임곤 목사(신일교회, 노회 서기), 설교는 이철주 목사(전주시은교회, 노회장), 권면은 박영래 목사(영신교회, 노회 부서기)와 한완옥 장로(시은영광교회, 부노회장), 축도는 윤정길 목사(남성교회, 전 노회장)가 맡았다.

4차 임직예식은 1995년 4월 29일 예배당 봉헌예식과 함께 진행되었다. 1994년 10월 2일 당회는 장로 6명을 증원키로 하고 노회의 허락을 받았으나, 10월 16일 당회는 추천된 후보들 가운데 황경주 장로(협동)와 이정석, 이희성, 진교현 등 4명의 후보를 공천하였다. 10월 23일 공동의회는 황경주 장로의 시무를 인준하고 이정석, 이희성, 진교현 3인을 장로 후보로 선출하였다. 안수집사와 권사 후보의 경우, 구역에서 추천된 안수집사 후보자 18명과 권사 후보자 24명을 대상으로 1월 11일부터 2월 15일까지 교육을 시행한 결과 안수집사 후보 10명과 권사 후보 15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당회는 그 이수자들을 후보로 공천하였다. 2월 19일 공동의회에서 안수집사 후보 10인과 권사 후보 11인을 선출하고, 2월 26일 공동의회에서 다시 4인의 권사 후



4차 임직예식 장로 임직자들(1995년 4월 29일)

보를 선출하였다. 1995년 4월 29일 예배당 봉헌예식과 함께 진행된 임직예식은 권이철 장로의 은퇴예식도 포함하였다. 안창엽 목사가 인도한 이날 예식에 기도는 한완옥 장로(시온영광교회, 노회장), 설교는 정복량 목사(전주전성교회, 부총회장), 권면은 윤정길 목사(남성교회)와 최동수 장로(동진교회), 은퇴 기도는 이철주 목사(전주시온교회), 축사는

박훈용 목사(전주시 기독교교회연합회 회장), 축도는 오채식 목사가 각각 담당하였고, 권이철 장로가 건축위원장으로 건축 보고를 하였다. 예배당 건축에 기여한 건축위원회 총무 안송엽 장로, 건축설계사 김광열 장로, 시공사 대표 이창승 장로에 대한 감사의 인사도 전하였다.



4차 임직예식(1995년 4월 29일)

■ 3차 임직예식(1993년 5월 23일)

- 집사 임직 : 김경식 김영선 L 박홍종 안길권 양병재 이연우
- 권사 임직 : 신은순 신향용 염번자

■ 4차 임직예식(1995년 4월 29일)

- 장로 취임 : 황경주
- 장로 임직 : 이정석 이희성 진교헌(3명)
- 집사 임직 : 강형희 김기영 김종희 박석승 서종선 이요셉 이한규 임태철 전광호
최경춘(10명)
- 권사 임직 : 김선주 민현숙 박정순 배인순 설순자 안월매 양순임 오순희 유계순
이강인 이명숙 이윤례 이정옥 정귀임 조귀자(15명)
- 명예권사 추대 : 문갑례 박희양(2명)

3) 안창엽 목사의 갑작스런 소천



고 안창엽 목사

1999년 11월 25일 안창엽 목사가 소천하였다. 1999년 11월 15일, 장로회신학대학교 이사회 참석 중이던 안창엽 목사가 갑작스레 쓰러져 중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뇌출혈이었다. 이튿날 새벽 전북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여 치료하였으나 쉽게 호전되지 않았다. 위급 소식이 전해지자 교회는 24시간을 구역별로 책임을 맡아 안창엽 목사의 쾌유와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였다. 그러나 안창엽 목사는 열흘 만인 11월 25일 끝내 주님 품으로 떠났다. 안창엽 목사의 갑작스러운 떠남은 가족들에게도, 교회에도 그리고 지역 교계에도 큰 충격이었고 아픔이었다.



교회를 떠나가는 고 안창엽 목사의 마지막 발걸음

안창엽 목사의 장례는 전북노회장으로 거행되었다. 노회장 임상희 장로의 인도로 전주강림교회당에서 치러진 장례예식의 설교는 정복량 목사(전주전성교회, 전총회장), 기도는 한완옥 장로(시온영광교회, 전노회장), 조사는 송길용 목사(이리신광교회)가 담당하였다. 안송엽 장로는 교인들을 대표하여 추모시를 낭독하였다. 설교를 맡은 정복량 목사는 “구약의 엘리야 예언자와 같이 옳음을 위해 굽히지 않는 삶, 쉴 새 없이 주의 일에 충성하는 삶, 결코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삶을 살아온 목회자”였다고 안창엽 목사를 평가하였다. 장례예식을 마지막으로, 안창엽 목사는 당신의 온 생명을 불태우던 전주강림교회를 뒤로 한 채 고향인 남원 이백면의 선영에 안장되었다.

안창엽 목사는 1983년 9월 18일 전주강림교회(당시 동산중앙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16년간 헌신적으로 목회하였다. 안정적인 목회지였던 효자동교회를 뒤로 한 채, 위태롭기만 하던 교회를 끌어안고 길러낸 장본인이었다. 부임 이후 교회의 예배

를 정비하고, 교인들의 신앙교육에 온 힘을 다 쏟았다. 제직들을 훈련하고 정밀하게 조직하여 교회 운영의 주체로 세워나갔다. 그렇게 16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교회는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여 많은 일꾼과 자원을 갖춘 하나님의 선교기관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4차에 걸친 임직을 통해 든든한 일꾼들을 세워왔고, 두 번에 걸친 예배당 건축에 이어 교육관까지 건축하면서 다양한 활동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선교와 사랑의 현장’이라고 하는 교회의 지향점을 수립하고, 농촌교회들과의 협력 선교, 해외 선교, 지역사회 봉사 선교 등 선교 활동의 지평을 넓히면서, 교회를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매개자로 가꾸는 목회를 실천하였다. 21세기를 내다보면서, 21세기 상황에서 교회의 나아갈 바를 모색하고 준비하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었다.

■안창엽 목사 약력

•생애

1938년 9월 9일 부친 안동선 씨와 모친 양남녀 씨의 3남 2녀 중 차남으로 전북 남원시 이백면 평촌리 258번지에서 출생

1965년 이계생 사모와 결혼하여 1남 4녀의 자녀를 둬

1999년 11월 25일 소천

•학력

1957년 남원농업고등학교 졸업

1965년 대한예수교장로회신학대학교 졸업

1978년 대한예수교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졸업

1993년 맥코믹 신학대학 목회학 박사학위 취득

•목회 경력

1962~1965년 전북 남원 오동교회 전도사

1965~1966년 전북 완주군 운주교회 전도사

1966~1968년 전북 완주군 삼레덕천교회 강도사, 담임목사

1968~1973년 고창중앙교회 담임목사

1973~1976년 이리성산교회 담임목사

1976~1983년 전주효자동교회 담임목사

1983년 9월 18일~1999년 11월 25일 전주강림교회 담임목사

• 교계 경력

1967년 전북노회에서 목사안수

1987년 전북노회장 역임

1987~1993년 전북 인권선교협의회 부회장 역임

전주시기독교연합회장 역임

1995~1996년 전북지역 사회선교협의회장 역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예식서 수정위원 역임

러시아모스크바 신학대학 객원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이사

전주근로자선교상담소 이사장

총대 경력 : 67회(1982), 69회(1984)~72회(1987), 74회(1989)~84회(1999)

• 논문과 저서

예배에 관한 학사, 석사, 박사 논문

『알기 쉬운 예배 이야기』(1998년)

고 안창엽 목사의 마지막 설교(1999년 11월 14일 주일예배)

“성공했으나 실패한 사람이 돼서야”

누가복음 12장 16~21절

예수님은 자기 사업에는 성공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부자 농부가 경영을 잘하여 가을에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좋은 경영 능력에다 기후나 여건도 좋아서 더 풍작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농사하

여 거둬들인 소출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미 있던 창고를 가지고는 다 저장할 수가 없어서 있던 창고를 다 헐고 더 크게 지었고 그래도 모자라 새로운 창고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돈이 많아졌으니 한 평생을 즐기며 멋있게 살아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인생의 대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평가는 다른 곳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멋있게 즐기며 살아보려는 사람에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네 영혼을 오늘 밤 다시 찾으면 그 재물이 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어리석은 것은 자기를 남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며 복을 주시기도 하시는 소위 생사화복(生死禍福)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살았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했어도 하나님 없이 사는 생애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인생의 실패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고 그분의 뜻을 찾아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하나님 제쳐 놓고 제 생각대로 제 지혜대로 살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해줍니다.

우리는 보통 돈이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 벌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유의 넉넉함이 행복이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산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공한 사람이란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서 권력을 마음대로 쓰면서 살아간 사람도 아니며,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며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때로는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사람들에게는 성공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 농부의 실패 원인은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에게 이웃도 없습니다. 오직 세상에 “나”만 있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17절에서 19절까지 3절에서 “내가 곡식을 쌓아 둘 곳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하고 “나”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오직 나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사람아”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사람은 나만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웃과 함께 살 때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부터 하나님 없이 그리고 이웃도 없이 제멋대로 살게 되었고 죄가 넘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또 이 부자 농부가 성공한 사람 같으나 하나님께 실패한 것은 자기가 노력하여 번 돈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향락에 쓸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보통 생각으로는 열심히 번 돈은 돈 번 사람의 것이고, 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그 돈 가지고 멋있게 즐기며 산다고 해서 시비가 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돈을 생각한 사람과 하나님 없이 돈을 생각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돈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돈을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쓰는 청지기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재물을 맡은 청지기라는 생각이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사람아”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값있게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가난해질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성공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란 한 번만 주어진 삶입니다. 열심히 돈 벌며 가족을 돌보며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어리석은 자여” 하는 비극적인 판단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신앙의 태도를 솔직하게 살펴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계획해야 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합니다.

4. 공간의 변화

1) 교회 소유 부동산의 변동

이 시기 교회의 대지에 약간의 변동이 있었다. 1995년 교회의 앞마당인 1581-16번지 대지(445㎡=135평)를 매입하였다. 2월 12일 당회에서 해당 대지 매입을 위한 1명의 특별회계를 선임하고 3월 12일 매입하여 4월 29일 전북노회 교회유지재단에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다. 또한, 1996년 5월 30일에는 금암동 1581-13,14,15,19의 4필지 1,126.6㎡(341평)를 1581-13 단일 번지로 합병하고, 전북노회 유지재단에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2) 교육관 건축

1993년 2월 7일 당회는 예배당 남쪽(금암동 1581-19)에 건평 약 94평의 2층 조립식으로 교육관을 건축하기로 하고, 2월 14일 교육관 건축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 제직회를 소집하였다. 제직회는 교육관 신축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조립식 건물로 건축하지는 당회의 안을 변경하여 영구 건물로 건축하기로 결정하였다. 해당 부지는 1987년 2차 예배당 건축 시 건축법 충족을 위해 추가 매입한 땅이었다. 1993년 2월 14일 제직회에서 안송엽 장로를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관 건축위원회를 구성하고, 건축을 추진한 끝에 연건평 95평의 2층 건물로 교육관을 완공하고 1993년 10월 10일 주일예배 후 입당예배를 드렸다.

■ 교육관 건축위원회

- 위원장 : 안송엽



교육관 기공예배(1993년)

- 위원 : 강형희 김경식 김영선 김영선 김을환 김종희 박석승 박홍종 안길권
양병재 이기경 이연우 이요셉 이정석 이한규 이희성 임건웅 정태희
조성환 진교헌

신축된 교육관의 1층에는 관리인 사택과 식당, 2층에는 중등부실과 고등부실이 배치되었다. 그 후 2004년 교육관 공간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졌다. 1층의 식당과 관리인 사택은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하여 식당 홀을 넓혔다. 2층의 중등부실과 고등부실도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한 후에 소년부실 겸 다목적실로 활용하고, 중등부와 고등부의 활동 공간은 지하로 변경하였다. 이 교육관 건물은 2018년 종합선교관 건축을 위해 멸실 처리 함으로써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3) 공간의 조정

1991년 지하 아동부실 리모델링을 통해 공간을 조정하고, 환풍기 설치, 의자 비치 등을 통해 교육 환경을 개선하였다(1991년 1월 20일, 2월 3일 당회록). 이때의 조정을 통해 지하에 온돌 기도실이 구비되었다(1991년 6월 23일 주보). 1991년 11월 3일 당회록은 유아실과 유치부실에 온돌 판넬 설치를 결의한 내용을 전해 준다. 지하 아동부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헌금이 1992년 6월 28일에 있었다. 이때 성가대실 확장도 함께 추진되었다. 1993년 1월 3일 당회는 예배당 1층에 있던 담임목사 사택을 뜯어 교육관을 넓히기로 결의하였다. 이러한 공간 조정을 위해 백제세원아파트 304호에 사택을 마련하여, 안창엽 목사 가정은 1993년 2월 16일 새로 마련된 사택으로 이거하였다. 1995년 어린이집(당시는 선교원으로 시작) 설치를 위해 1층 공간의 용도가 다시 한번 조정되었다. 1995년 12월 13일 당회는 어린이집을 위한 공간으로 유치부실, 유년부실, 여전도회실을 사용하도록 결정하였다. 또한 1996년 11월 3일 당회는 성가대실도 어린이집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온돌 시설을 설치하고 옷장 등 공간을 정리하였다.

1999년 7월에는 예배실 음향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 작업이 있었다. 우선 3층 계단 앞쪽(현재의 방송실 위치)에 방송실을 설치하였다. 그전까지는 교회방송실이 따로 없었다. 본당 예배실 우측 천정 안에 방송기자재를 비치해둔 정도였다. 이때, 방송실을 설치하고 노후된 앰프와 스피커, 마이크 케이블 등 음향 장비 전체를 교체함으로써 예배 시 음향의 질을 향상시킨 것이었다.

II. 기구와 조직

1. 연도별 현황

1) 연도별 직원 현황

■ 1991년

- 교역자 담임목사 : 안창엽
 전도사 : 박금녀 양인석 최만규
- 장로 시무 : 권이철 김기범 안송엽 류시영 온호섭
 협동 : 황경주
- 안수집사 시무 : 고창남 김을환 양기영 이정석 임건웅 조성환 진교헌 허용욱
 협동 : 이희성
- 권사 시무 : 김정은 박영자 송양순 이순의 이정자
- 서리집사 : 남자 32명, 여자 102명, 명예 9명

■ 1992년

- 교역자 담임목사 : 안창엽
 전도사 : 박금녀 최만규

- 장로 시무: 권이철 김기범 안송엽 류시영 온호섭
협동: 황경주
- 안수집사 시무: 김을환 이정석 임건웅 조성환 진교헌 허용욱
협동: 이희성 정태희
- 권사 시무: 김정은 박영자 송양순 이순의 이정자
협동: 김봉녀 박은주, 명예: 이순옥
- 서리집사: 남자 41명, 여자 115명, 명예 9명

■ 1993년

- 교역자 담임목사: 안창엽
부목사: 최만규, 전도사: 박금녀 이경
- 장로 시무: 권이철 김기범 안송엽 류시영 온호섭
협동: 황경주
- 안수집사 시무: 김을환 이정석 임건웅 조성환 진교헌
협동: 이희성 정태희
- 권사 시무: 김정은 박영자 송양순 이순의
협동: 김봉녀 박은주, 명예: 이순옥
- 서리집사: 남자 45명, 여자 121명, 명예 10명

■ 1994년

- 교역자 담임목사: 안창엽
전도사: 동선옥 서경자 온성진 이경
- 장로 시무: 권이철 김기범 안송엽 류시영 온호섭
협동: 황경주
- 안수집사 시무: 김경식 김영선, 김을환 박홍중 안길권 양병재 이연우
이정석 임건웅 조성환 진교헌

협동 : 김영선J 양기영 이희성 정태희

- 권사 시무 : 김정은 박영자 송양순 신은순 신향용 염번자 이순의
협동 : 김봉녀 박은주, 명예 : 이순옥
- 서리집사 : 남자 42명, 여자 134명, 명예 10명

■ 1995년

- 교역자 담임목사 : 안창엽
전도사 : 동선옥 온성진
- 장로 시무 : 권이철 김기범 안송엽 류시영 은호섭
협동 : 정인기 황경주
- 안수집사 시무 : 김경식 김영선L 김을환 박홍종 안길권 양병재 이연우
이정석 임건웅 조성환 진교헌
협동 : 김구태 김동수 김영선J 양기영 이희성 정태희
- 권사 시무 : 박영자 신은순 신향용 염번자
협동 : 김봉녀 박은주 서경자
은퇴 : 김정은 송양순 이순의, 명예 : 박순례 이순옥
- 서리집사 : 남자 47명, 여자 142명, 명예 9명

■ 1996년

- 교역자 담임목사 : 안창엽
전도사 : 동선옥 서경자 온성진
- 장로 시무 : 김기범 안송엽 류시영 은호섭 이정석 이희성 진교헌 황경주
협동 : 정인기, 은퇴 : 권이철
- 안수집사 시무 : 강형희 김경식 김기영 김영선L 김을환 김종희 박석승
박홍종 서종선 안길권 양병재 이연우 이요셉 이한규 임건웅
임채철 전광호 조성환 최경춘

- 협동 : 김구태 김동수 김영선 양기영 장지석 정태희
- 권사 시무 : 김선주 민현숙 박영자 박정순 배인순 설순자 신은순 신향용
안월매 양순님 염번자 오순희 유계순 이강인 이명숙 이윤례
이정옥 정귀임 조귀자
협동 : 김봉녀 서경자, 은퇴 : 김정은 송양순 이순의
명예 : 문갑례 박순례 박희양 이순옥
 - 서리집사 : 남자 47명, 여자 138명, 명예 7명

■ 1997년

- 교역자 담임목사 : 안창엽
부목사 : 온성진, 전도사 : 동선옥 서경자
 - 장로 시무 : 김기범 안송엽 류시영 온호섭 이정석 이희성 진교헌 황경주
협동 : 정인기, 은퇴 : 권이철
 - 안수집사 시무 : 강형희 김경식 김기영 김영선 김을환 김종희 박석승
박홍종 서종선 안길권 양병재 이연우 이요셉 이한규 임건웅
임채철 전광호 최경춘
협동 : 김구태 김동수 김영선 양기영 장지석 정태희
 - 권사 시무 : 김선주 민현숙 박영자 박정순 배인순 설순자 신은순 신향용
양순님 염번자 오순희 유계순 이강인 이명숙 이윤례 이정옥
정귀임 조귀자
협동 : 고수현 김봉녀 박순례 서경자 이양순
은퇴 : 김정은 송양순 이순의
명예 : 문갑례 박희양 어성녀 이순옥
- 서리집사 : 남자 50명, 여자 152명, 명예 7명

■ 1998년

- 교역자 담임목사: 안창엽
 부목사: 온성진, 전도사: 동선옥 서경자, 교육전도사: 김주옥
- 장로 시무: 김기범 안송엽 류시영 온호섭 이정석 이희성 진교헌 황경주
 협동: 김병규 정인기, 은퇴: 권이철
- 안수집사 시무: 강형희 김기영 김영선L 김을환 김종희 박석송 박홍종
 서종선 안길권 이연우 이요셉 이한규 임건웅 임채철 전광호
 최경춘
 협동: 김구태 김동수 김영선J 양기영 장지석
- 권사 시무: 김선주 민현숙 박영자 박정순 배인순 설순자 신은순 신향용
 양순님 염번자 오순희 유계순 이강인 이명숙 이윤례 이정옥
 정귀임 조귀자
 협동: 고수현 박순례 서경자 유귀민 이양순
 은퇴: 김정은 송양순 이순의
 명예: 문갑례 박희양 여성녀 이순옥 정복순
- 서리집사: 남자 60명, 여자 160명, 명예 9명

■ 1999년

- 교역자 담임목사: 안창엽
 부목사: 온성진, 전도사: 동선옥 서경자, 교육전도사: 김주옥
- 장로 시무: 김기범 안송엽 류시영 온호섭 이정석 이희성 진교헌 황경주
 협동: 김병규 정인기, 은퇴: 권이철
- 안수집사 시무: 강형희 김기영 김영선L 김을환 김종희 박석송 박홍종
 서종선 안길권 이연우 이요셉 이한규 임건웅 전광호 최경춘
 협동: 김구태 김동수 김영선J 양기영 장지석
- 권사 시무: 김선주 민현숙 박영자 박정순 배인순 설순자 신은순 신향용

양순님 염번자 오순희 유계순 이강인 이명숙 이윤례 이정옥
정귀임 조귀자

협동 : 교수현 박순례 서경자 유귀민 이양순

은퇴 : 김정은 송양순 이순의

명예 : 강금순 문갑례 박희양 어성녀 유성남 이순옥 정복순

- 서리집사 : 남자 62명, 여자 165명, 명예 11명

2) 연도별 조직 현황

■ 1991년

- 당회장 : 안창엽, 당회 서기 : 김기범
- 제직회 서기 : 김청옥, 부서기 : 이요셉, 회계 : 임건웅
특별회계 : 양기영, 부회계 : 김종희 박홍종 이영규 최경춘
선교부장-류시영, 교육부장-황경주, 재정부장-온호섭, 홍보부장-허용욱,
봉사부장-이윤례, 관리부장-이정석, 경조부장-진교헌

■ 1992년

- 당회장 : 안창엽, 당회 서기 : 온호섭
- 제직회 서기 : 김청옥 박홍종, 회계 : 김을환
특별회계 : 이정석, 부회계 : 강형희 김종희 이성철 이요셉 최경춘
선교부장-김기범, 교육부장-류시영, 재정부장-안송엽, 홍보부장-허용욱,
봉사부장-신은순, 관리부장-임건웅, 경조부장-온호섭

■ 1993년

- 당회장 : 안창엽, 당회 서기 : 온호섭

- 제직회 서기 : 임건웅, 부서기 : 박홍중, 회계 : 김을환, 특별회계 : 김종희
부회계 : 강형희 김기영 유병조 이성철 최정근, 감사 : 온호섭
선교부장-김기범, 교육부장-황경주, 새신자부장-안송엽, 재정부장-안송엽,
홍보부장-이정석, 봉사부장-오순희, 관리부장-류시영, 경조부장-조성환

■ 1994년

- 당회장 : 안창엽, 당회 서기 : 류시영
- 제직회 서기 : 박홍중, 부서기 : 이기경, 회계 : 임건웅, 특별회계 : 이성철
부회계 : 강형희 김기영 김영선 임구영 정태희, 감사 : 안송엽 김을환
선교부장-양병재, 교육부장-안길권, 새신자부장-류시영, 재정부장-김기범,
홍보부장-전광호, 봉사부장-황등자, 관리부장-이연우, 경조부장-김경식,
주방관리부-염번자

■ 1995년

- 당회장 : 안창엽, 당회 서기 : 류시영
- 제직회 서기 : 박홍중, 부서기 : 이성철, 회계 : 안길권, 특별회계 : 김종희
부회계 : 김기영 김영선 임구영 전광호 정태희 최정근, 감사 : 김기범 김을환
선교부장-임건웅, 교육부장-양기영, 새신자부장-온호섭, 재정부장-류시영,
홍보부장-전재형, 봉사부장-염번자, 관리부장-이연우, 경조부장-강형희,
주방관리부장-신향용

■ 1996년

- 당회장 : 안창엽, 당회 서기 : 진교헌
- 제직회 서기 : 박홍중, 부서기 : 윤철, 회계 : 김영선L
특별회계 : 김종희, 대지회계 : 전광호
부회계 : 강형희 김구태 박석승 서종선 이성철 이진산 양병택 정종섭

감사 : 김기범 안길권

선교부장-양병재, 교육부장-양기영, 새신자부장-온호섭, 재정부장-황경주,
홍보부장-전재형, 봉사부장-민현숙, 관리부장-이연우, 경조부장-이한규,
주방관리부장-박정순

■ 1997년

- 당회장 : 안창엽, 당회 서기 : 진교현
- 제직회 서기 : 김영선L, 부서기 : 윤철, 회계 : 김영선J
특별회계 : 김종희 황양우, 대지회계 : 전광호
부회계 : 김구태 김동수 박석승 배인순 서종선 이선옥 이연우 이진산 전광호
정종섭 최경춘

감사 : 류시영 안길권

선교부장-류시영, 교육부장-전재형, 새신자부장-온호섭, 재정부장-황경주,
홍보부장-이정석, 봉사부장-정귀임, 관리부장-강형희, 경조부장-이한규,
주방관리부장-박정순, 행사부장-박홍중

■ 1998년

- 당회장 : 안창엽, 당회 서기 : 이희성
- 제직회 서기 : 최경춘, 부서기 : 윤철, 회계 : 김영선L
부회계 : 김세영 김종희 박석승 서종선 이진산 전광호 정종섭 황양우

감사 : 황경주 안길권

선교부장-장지석, 교육부장-전재형, 새신자부장-신은순, 재정부장-온호섭,
홍보부장-박진범, 봉사부장-조귀자, 주방관리부장-이요셉, 경조부장-이한규,
행사부장-박홍중

■ 1999년

• 당회장 : 안창엽, 당회 서기 : 이희성

• 제직회 서기 : 안길권, 회계 : 전광호

부회계 : 강형희 김상균 김영윤 김종희 박석승 배인순 장귀순 황양우

감사 : 황경주 김영선

선교부장-장지석, 교육부장-전재형, 새신자부장-류시영, 재정부장-온호섭,

홍보부장-박진범, 봉사부장-조귀자, 주방관리부장-이요셉, 경조부장-이한규,

행사부장-박홍중

2. 행정기구

1) 당회와 공동의회

이 시기에 이르러 당회는 교회의 정책을 수립하고 각급 기구들의 활동을 조율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하였다. 1991~1999년까지의 당회록을 보면, 당회 안에서 교회가 나아갈 방향과 관련한 정책적 토의를 활발하게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1992년 ‘직원 선택 내규’, 1997년 ‘교회 직원 보수 규정’과 같은 각종 규정을 생산해 냈다. 또한 ‘선교와 사랑의 현장’ 갖기 운동을 위해 농촌선교위원회, 지역사랑위원회, 의료선교위원회, 교육위원회, 노인대학, 파란하늘어린이집 등 새로운 조직과 기구들을 만들고, 각 기구의 역할과 활동을 조율하였다. 당회원들은 자체적인 선교회비를 마련하여 1995년 9월 10일 러시아 남부 머즈독지역에 뿌라홀라드니교회를 개척하고 지원하는 등 ‘선교와 사랑의 현장’을 향한 교회의 발걸음에 있어서 솔선수범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교회가 연이은 건축으로 짊어지고 있던 부채를 필요에 따라 개인 명의로 부채로 이관하거나, 개인의 담보와 신용으로 대출

한계를 극복하기도 하고, 개인 재산을 기증하여 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등의 희생적 헌신도 감당하였다. 한편, 1991년도 당회록부터 컴퓨터로 작성된 회의 자료들이 부분적으로 첨부되기 시작하여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당회원 구성의 변동으로는 1990년 말 송영봉 장로의 이명, 1994년 말 권이철 장로의 은퇴가 있었다. 1995년 4월 29일 임직예식을 통해 이정석, 이희성, 진교헌, 황경주 장로가 충원되었다. 부목사로 시무한 최만규 목사와 온성진 목사 역시 시무 기간 당회원으로 활동하였다. 당회는 매월 첫째 주일에 정기적으로 모였고, 1996년도에는 첫째 주일 전 토요일 저녁에 모임을 가졌다. 매년 8월에는 당회원들의 수련회도 가졌는데, 이 전통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1996년부터는 “정책당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다음 연도의 정책을 논의하는 일이 시작되었다. 1999년 안창엽 목사의 소천 후 전북노회는 정복량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였다.

한편 공동의회는 매해 연초 혹은 연말에 예결산을 위해 모였다. 1992년 1월 12일 공동의회는 당회가 제출한 ‘교회 직원 선택 내규’를 수정하여 제정하였고, 1993년 2월 21일 공동의회는 6명의 안수집사 후보와 3명의 권사 후보를 뽑아 세웠다. 1994년 10월 23일 공동의회는 황경주 장로의 시무를 인준하고 이정석 이희성 진교헌 집사를 장로 후보로 선택하였으며, 1995년 2월 19일과 26일의 공동의회는 10명의 집사 후보와 15명의 권사 후보를 선택하였다.

당회 직속의 위원회들이 다수 조직되고 활발하게 움직인 것이 이 시기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다. 이 시기 교회 조직표에는 당회 직속으로 ‘교육위원회’를 두어서 교회학교와 1·2청년부를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1991년 조직표에는 당회 직속의 특별위원회로 ‘기관협의회’, ‘건축위원회’, ‘농촌선교위원회’, ‘지역선교위원회’가 들어가 있다. 기관협의회는 남선교회와 여선교회 회장단 협의체로서 필요에 따라 회합하여 협의하는 조직이었다. 건축위원회는 예배당 봉헌(1995년 4월 29일)이 있었던 1995년까지 조직도 상에 나타나다가 1996년도부터는 빠진다. 건축 부채를 상환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제직회 회계 중 ‘특별회계’가 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 시기 건축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한

것은 1993년 교육관 건축을 위해 조직된 건축위원회였다. 1997년부터 ‘어린이집 운영회’가 당회 직속 기구에 포함되었다. 농촌선교위원회와 지역사랑위원회는 1991년 2월 10일 조직되어 ‘선교와 사랑의 현장’ 관련 사업들을 가장 왕성하게 주도한 조직이었다. 1995년부터는 이 두 조직의 임무 매뉴얼이 교회 수첩에 수록되기 시작하였다.

2) 제직회

1991년부터 정기제직회 모임은 매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로 변경되었다. 1993년부터는 정기제직회의 횟수가 연 6회로 줄면서, 매월 홀수 달 둘째 주에 모였고 짝수 달에는 부서별 모임을 가졌다. 1997년부터는 정기제직회가 짝수 달로 옮겨 가고, 홀수 달에 부서별 모임이 있었다. 연말 혹은 연초에는 새 조직과 예산산을 위한 제직회로 모였다. 1991년 제직회의 부서 조직은 선교부, 교육부, 재정부, 홍보부, 봉



제직수련회(1992년)



재정부원들(1991년)

사부, 관리부, 경조부로 이루어졌다. 분리되었던 선교부와 전도부가 다시 통합된 형태였다. 1993년에는 새신자부, 1994년에는 주방 관리부가 새롭게 생겨났다.

해마다 1월에 제직헌신예배를 드리는 일이 1991년부터 시작되어 이 시기 내내 지속되었고, 지금까지의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1991년의 제직수련회는 1월 20일 전주 동시찰 연합 제직수련

회에 참석하고, 12월 1·8·15·22일 주일밤예배 후 진행되었다. 1992년에는 1월 12일 “직분 받은 자의 자세”(안창엽 목사), 19일 “제직과 교회성장”(정복량 목사), 26일 “제직과 청지기”(염용택 목사)로 제직수련회를 진행하였다. 1994년에는 12월 11일 “건전한 영적 자세”(박종덕 목사)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가졌다. 이후 제직수련회는 다소 느슨해지다가 1996년 12월 18일 수요성서학교에서 “제직의 사명—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 1997년 10월 15일~11월 16일 4회에 걸쳐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사람의 태도”, “모든 직분자들이 공통으로 해야 할 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나를 보내주소서” 등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1999년에도 11월 한 달 동안 수요성서학교 시간을 제직수련회로 진행키로 하였으나 안창엽 목사가 갑작스레 소천하면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예결위원회의 활동은 1991년부터 확인된다. 1991년 11월 10일 소집된 예결위원회는 아동부·중등부·고등부·청년부 부장들과 농촌선교위원장, 재정부장, 회계, 건축회계, 교육위원장으로 구성되었다. 1992년 11월 1일 당회는 ‘예결위원 선임-예결위에서 예산 초안 작성-당회 검토-제직회-공동의회’로 이어지는 예결산 프로세스를 정립하였다. 1995년 12월 20일 당회록은 예결위원으로 안송엽, 김기범, 황

경주 3인의 당회원을 지정하고 당연직 예결위원으로 재정부장, 회계, 1·2·3남선교회장을 표기해 놓고 있어서, 당시 예결위원회의 구성방식을 알려준다. 교회 예산 규모의 변화 추이를 보면, 1992년 결산액이 179,428,188원이었고, 1993년 결산액은 235,716,185원, 1994년도 결산액은 229,591,110원, 1999년도 결산액은 352,274,963원으로 점증하였다. 한편, 1995년부터는 각 부서의 재정 관리를 통장을 통해 관리하도록 정하였다.

3. 교회학교

1) 운영

1990년대는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그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선 시기였다. 학령기 인구가 감소하고 있었고,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진입과 함께 경쟁의 과잉 시대가 되면서 교회는 학교와 학원의 뒷전으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교회학교가 가지고 있던 문화활동 공간으로서의 역할 역시, 경제력의 향상에 따라 증가한 여러 가지 레저활동과 문화활동들에게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 ‘동네 아이들’에 대한 접근이 중요했던 교회학교가 약화되는 데에는, 각 교회가 ‘동네 교회’의 성격을 잃게 되었던 점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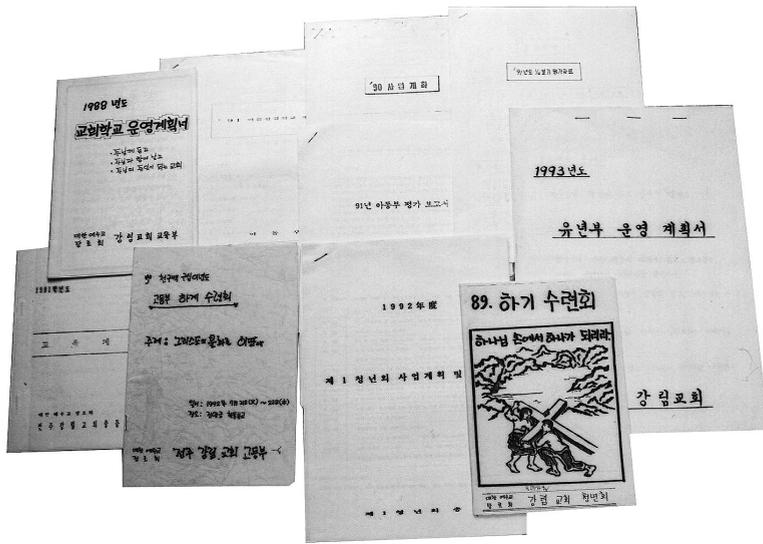
이렇게 어려움이 시작되자 각 교회는 교회학교의 활력을 이어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기 시작한다. 교회학교 시스템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행정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교회학교 교사들의 질적 향상이 중요하다고 보아 교사교육 프로그램에 힘을 쏟았다. 또한 ‘교육관’이라는 이름으로 교회학교 아이들의 활동 공간을 확충하고, 교회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렸다. 총회 차원에서도, 교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회학교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노력으로, 1997년 ‘교사 주

일'을 제정하고 교회교육대회를 개최하여 교회학교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전주강림교회도 1997년 7월 13일 총회 제정 제1회 교회학교 교사 주일을 지키며 모범교사 표창도 하였다. 이때 모범교사로는 유치부 이미경, 유년부 노윤숙, 소년부 양민숙, 중등부 온수정, 고등부 안길권 등을 선정하였다.

이 시기 전주강림교회의 교회학교 역시 많은 부분에서 한국교회 일반과 마찬가지로 교회학교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우선, 행정적 체계화가 진행되었다. 1990년 12월 2일 교육위원회(위원장: 황경주 장로)를 설치하여 교회학교 전반의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교육위원회는 간헐적으로 모이다가 1997~1999년에는 '2·5·9·12월 첫째 주일 2부 예배 후'로 모임을 고정하고 교회학교 운영을 조율하였다. 1991년 아동부가 남긴 교육평가 자료를 보면, 행정적 체계가 정립된 것을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로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이 시기부터 각 부서의 연간 사업계획서 및 성경학교와 같은 행사계획서들이 작성되고 다수 보존되기 시작한다. 컴퓨터의 보급으로 각종 문서의 작성과 배부, 보존이 용이해지기 시작한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아동부 교사들(1991년)



교회학교 활동 자료들

두 번째로, 교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었다. 1991년 2월 25~26일에는 “성령과 교육”이라는 주제로 교사수련회를 개최하였다(강사: 송남순 교수, 안창엽 목사). 1992년 12월 6일에도 한일장신대학교 기독교 교육학 송남순 교수를 강사로 교사교육이 진행되었다. 1994년에는 교회학교 설교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자 교육도 있었다. 1월 16일과 23일 각각 “설교의 이론적 이해”,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설교작성 연습”이라는 제목으로 안창엽 목사가 강의하였다.

세 번째로, 교육 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1991년에는 지하에 있던 소년부실 리모델링을 통해 공간을 조정하고, 환풍기 설치, 의자 비치 등 교육 환경을 개선하였다. 같은 해 유아실과 유치부실 온돌 판넬 설치도 진행되었다. 1993년에는 예배당 1층에 있던 목사 사택을 뜯어 교육관을 넓히고, 교육관을 건축함으로써 교회 학교의 활동 공간이 크게 확충되었다.

교회학교 재정 상황을 보면, 1991년 중등부 연간 예산이 178만 1,550원인데 이 가운데 교회 재정으로부터의 지원금이 40만 원이었다. 1993년 유년부의 연간 예산은 250만 원이고 그 가운데 교회 재정 지원금이 100만 원이었다. 1996년 유치부의 연간 예산 총액은 292만 원인데 이 가운데 교회 재정으로부터의 지원금이 190만 원이었다. 10년 전이었던 1986년도 아동부 예산이 38만 원이고 그 가운데 교회 재정으로부터의 지원이 15만 원이었던 것에 견주면, 큰 폭으로 확충되어 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활동

1991년 교회학교의 모임 시간은 아침 9시였다. 이후 다소의 조정이 이루어지는데, 유치부는 1993년부터 9시 30분으로 모임 시간을 변경하였다. 1996년에는 유치부가 아침 11시로, 고등부가 8시 30분으로 시간을 변경하였다. 1999년에는 아동부(유년부, 소년부)와 중등부의 모임 시간이 8시 30분으로, 고등부는 9시 30분으로 바뀌었다. 1992년부터는 유치부 안에 ‘영아부’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였다(부장: 박금녀 전도사). ‘아동부’는 1993년부터 ‘유년부’와 ‘소년부’로 분리되어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활동 공간이 확충되면서, 교육의 용이성을 위해 연령을 보다 세분화한 것이다.

이전 시기에는 각 부서별로 연 4회였던 교회학교 헌신예배가 연 1회로 조정되었다. 헌신예배에 참여하는 자치기관 숫자 증가와 더불어, 교회학교 운영비를 헌신예배를 통해 충당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재정이 확충된 결과였다. 매년 부활절과 성탄절의 절기 행사를 통해 전교회적인 공동체 이루기에 참여하는 일이 계속되었다. 한편, 매년 12월 말에 진행되던 교회학교 ‘졸업예배’가 1995년부터는 ‘진급예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신앙과 교육의 연속성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1993년도분부터 남아있는 유치부 교육 활동 자료를 보면, 유치부 모임은 예배와 특별 활동으로 진행되고 월 2회 정도의 분반공부가 있었다. 특별 활동은 창작 활



아동부 헌신예배(1992년)

동, 놀이, 찬양 배우기, 각종 행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설교는 교사들이 윤번으로 담당하면서, 교역자들과 일부 장로들이 간헐적으로 참여하였다. 1995년 기준으로 30명 내외의 출석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1991년 아동부의 경우 예배, 분반공부, 특별 활동으로 모임이 운영되었다. 설교는 양인석 전도사가 월 2회, 김기범 부장이 월 1회를 담당하고 나머지를 교사와 교역자, 장로 중에서 분담하였다. 1분기에 월평균 86~124명의 출석을 기록하고 있다. 유년부와 소년부로 나뉜 1993년 유년부 운영은 이전의 아동부와 비슷한 가운데, 설교는 교사들이 윤번으로 담당하면서 교역자들이 간헐적으로 참여하는 구조였다.

이 시기 중등부와 고등부의 활동을 보여주는 자료로 1991년 중등부 교육계획서, 1992년 고등부 문집 「사랑」, 1992년 고등부 여름수련회 자료집이 있다. 중등부 교육계획서에 따르면 모임은 예배, 친교, 공과공부로 총 1시간 30분가량 진행되었다. 설교는 최만규 목사가 월 2회를 담당하고 그 외에는 교사들과 장로, 교역자들이 참여하는 형태였다. 고등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고등부 문집 「사랑」은

목교회, 1995년 화산 종리교회, 1996년 장수 신기교회, 1997년과 1999년 화산 종리교회를 찾아갔다. 고등부의 경우, 1991년 진안 와룡교회, 1992년 진안군 정천면 학동국민학교, 1995년 진안 성은교회, 1996년 화산 종리교회, 1997년 임실 운암교회, 1999년 장수 신기교회를 찾아갔다. 자매결연 관계에 있는 교회를 주로 찾는 가운데, 본 교회 부목사였던 최만규 목사가 담임목사로 부임한 종리교회도 수련회 장소로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시기부터 겨울수련회와 겨울성경학교가 하루 혹은 1박 2일로 열리기 시작하였다. 기록상으로는 1992년 2월 28~29일 중등부 겨울수련회가 그 시작이었고, 1994년부터 고등부도 이에 동참하기 시작하였으며, 1997년에는 유년부와 소년부도 1박 2일로 겨울성경학교를 가졌다.

이 시기 교회학교 활동에서 특징적인 것 하나는, 자매결연교회 방문 행사가 있었다는 점이다. 1992년 8월 23일 아동부는 이리 엘림교회를, 11월 15일에는 고등부가 평촌교회를 방문한 데 이어, 1994년에는 유년부가 고창 월산교회, 소년부가 8월 28일에 남원 금지교회를 방문하였고, 1995년 8월 20일에는 고등부가 피목교회를 방문하였음이 주보를 통해 확인된다. 농촌선교위원회를 통해 결연이 맺어진 교회들을



중등부 헌신예배 후(1991년)

방문하여 교류함으로써, “선교와 사랑의 현장” 갖기 운동에 교회학교도 함께 동참했던 것이다.

3) 연도별 편성 현황

■ 교역자(전임/파트)

- 1991년 : 박금녀 최만규 / 양인석
- 1992년 : 박금녀 최만규 / 이경
- 1993년 : 박금녀 최만규 / 이경
- 1994년 : 동선옥 서경자 온성진 / 이경
- 1995년 : 동선옥 온성진
- 1996년 : 동선옥 서경자 온성진
- 1997년 : 동선옥 서경자 온성진
- 1998년 : 동선옥 서경자 온성진 / 김주옥
- 1999년 : 동선옥 서경자 온성진 / 김주옥

■ 교육위원회

- 1991년
위원장 : 황경주
- 1992년
위원장 : 황경주, 총무 : 이정석, 서기 : 진교헌
위원 : 김기범 류시영 박금녀 송행복 온호섭 최만규 황경주
- 1993년
위원장 : 안창엽
위원 : 김영선, 김영애 류시영 박금녀 안송엽 이경 진교헌 최만규 황경주

•1994년

위원장 : 안창엽

위원 : 김영선L 김영애 안송엽 온성진 이경 이정석 진교헌 황경주

•1995년

위원장 : 안창엽

위원 : 김기범 김정희 동선옥 안송엽 온성진 이정석 이희성 진교헌 황경주

•1996년

위원장 : 안창엽

위원 : 김기범 김정희 안송엽 온성진 이정석 이희성 진교헌 황경주

•1997년

위원장 : 안창엽

위원 : 김기범 김정희 안송엽 온성진 이정석 정인기 진교헌 황경주

•1998년

위원장 : 안창엽

위원 : 김병규 김영선L 이연우 온성진 이정석 이혜정 정인기 황경주

•1999년

위원장 : 안창엽

위원 : 김병규 김영선L 안송엽 온성진 이연우 이혜정 이희성 황경주

■유치부

•1991년

부장 : 김영애

교사 : 김경님 김성님 안선미 이미경 이미영 이영빈 정선자 조혜숙

•1992년

영아부장 : 박금녀, 유치부장 : 송행복

영아부 교사 : 박상미 양혜영 유별 윤지원 이경임 최종훈 최지연

유치부 교사: 김경님 김성님 김혜영 박세현 양혜영 이미경 이영빈 정호영
조혜숙 최혜숙

• 1993년

영아부장: 박금녀, 유치부장: 김영애

영아부 교사: 유별 윤지원 이경임 최지연

유치부 교사: 김성님 김혜영1 김혜영2 신송춘 이미경 최혜숙

• 1994년

영아부장: 이경, 유치부장: 김영애

영아부 교사: 양혜민 유하주 윤지원 이정아

유치부 교사: 김수찬 박미정 신송춘 양은영 오재정 이미경 최혜숙

• 1995년

부장: 김정희, 총무: 최혜숙

교사: 김세순 박미정 박상미 박원숙 신송춘 안진경 오재정 유별 이미경 허현숙

• 1996년

부장: 김정희, 총무: 신송춘

교사: 김세순 박미애 박미정 박상미2 안진경 양은영 유루미 유별 이미경
이현자 임숙정 정성임

• 1997년

부장: 김정희, 총무: 신송춘

교사: 김세순 김현미 김효정 박상미2 송은주 안미영2 양은영 양혜영 유별
이미경 이현자

• 1998년

부장: 이해정, 총무: 신송춘

교사: 김현미 김현정 박상미 신송춘 안미영 양은영 양혜영 유별 이미경 이현자

• 1999년

부장: 이해정, 총무: 신송춘

교사 : 김지영 김효정 박상미 신순복 양은영 양혜영 유별 이수미 임정현

■ 아동부(1991~1992년)

• 1991년

부장 : 김기범

교사 : 고명순 김성녀 김완진 김현경 김현실 김혜영 안진상 안진희 양병재
양지영 양태섭 왕상위 원지현 이감철 이연우 이영춘 이인자 허선숙
허연

• 1992년

부장 : 김기범

교사 : 김영산 김영애 안진상 양병재 이한규 정태희 허연 황의덕 강은희
김현경 안선미 안진희 양지영 원지현 이영춘 이인자 최자미 허선숙
허수영 황주희

■ 유년부(1993~1999년)

• 1993년

부장 : 김영선L, 총무 : 임채철

교사 : 고명순 양은영 이영춘 이인자 정인숙 정정옥 진성용 최자미 황의석

• 1994년

부장 : 김영선L

교사 : 강춘자 고명순 박인순 김성님 김정희 성정수 신미숙 유루미 이인자
전을자 정인숙 조윤정 최자미 한용안

• 1995년

부장 : 이희성, 총무 : 강형희

교사 : 고명순 박인순 김성님 노윤숙 박상미 신윤희 이정옥 이현옥 전을자
정명숙 진선미 최자미

- 1996년
 부장 : 이희성, 총무 : 강형희
 교사 : 노윤숙 박상미1 신윤희 안태경 이정옥 이해정 정명숙 진선미 최자미
- 1997년
 부장 : 정인기, 총무 : 강형희
 교사 : 김호산 노윤숙 박상미1 박상희 안태경 오봉애 이정옥 이현경 이현준
 이해정 정명숙
- 1998년
 부장 : 정인기, 총무 : 강형희
 교사 : 김효정 노윤숙 오봉애 온수정 온영진 윤가원 이정옥 이지향 이현경
 이현준 정명숙 정복순
- 1999년
 부장 : 이희성, 총무 : 박상미
 교사 : 김명자 김지연 박상미 안선아 온수정 이정옥 이지향 이현경 이현욱
 정명숙 정지원

■ 소년부(1993~1999년)

- 1993년
 부장 : 진교헌, 총무 : 이연우
 교사 : 김대중 김영산 김현경 안진희 원지현 최정숙 허명순 허수영 황주희
- 1994년
 부장 : 진교헌
 교사 : 김옥희 손은주 안효정 양옥경 양지현 이연우 이영춘 장애란 전순례
- 1995년
 부장 : 김기범, 총무 : 이연우
 교사 : 김옥희 김철 김현경 김현숙 안진희 안효정 양병재 양지현 원지현

이영춘 장애란 전선희 최옥주 하승완

•1996년

부장 : 김기범, 총무 : 이연우

교사 : 김옥희 김철 김현경 김현숙 안지영 안진희 양민숙 원지현 이영춘 이준
최옥주

•1997년

부장 : 김기범, 총무 : 이연우

교사 : 국영란 김매선 김현숙 김혜영 박미애 안미영 안진상 안진희 양민숙
최옥주

•1998년

부장 : 이연우, 총무 : 박미애

교사 : 국영란 김영애 김은희 김현숙 김혜영 안미영 안진상 전승혜 정순덕
정은지 최복순

•1999년

부장 : 이연우, 총무 : 박미애

교사 : 김영산 김영애 김현숙 김혜영 박미애 안미영 안진상 유시영 장지혜
전승혜 정순덕 정은지 최복순

■ 중등부

•1991년

부장 : 황경주

교사 : 김경식 김영산 김옥희 박정혜 성민식 안길권 온인숙 임점이
회장 최영수, 부회장 박상미, 서기 이강승, 회계 문귀록

•1992년

부장 : 류시영

교사 : 김경식 김중희 성민식 안길권 온수정 이영숙 이진산 정연자 황상연

회장 이강승, 부회장 안태경, 서기 권현정 김기환, 회계 안선아 윤가원,
총무 김호산

•1993년

부장 : 류시영

교사 : 김경식 김종희 박미영 왕상위 이진산 이한창 이해정 허선숙 황상연
회장 최종훈, 부회장 윤가원, 서기 안미영 김세정, 회계 김세진 박상희,
총무 김기완

•1994년

부장 : 이정석

교사 : 김경식 김종희 안선미 양재필 양태섭 온기천 왕상연 이진산 이한창
이해정

회장 서동혁, 부회장 김세정, 총무 안민권, 서기 정인실 김지영,
회계 전승혜 김보람

•1995년

부장 : 이정석, 총무 : 김종희

교사 : 김옥자 박미영 양재필 양정운 온수정 이해정 임재철

회장 정화훈, 부회장 이승규, 총무 안효열, 서기 김보람, 회계 윤지원

•1996년

부장 : 안송엽, 총무 : 양병재

교사 : 김상균 김성님 김옥자 김태용 박미영 성영자 양재필 양정운 양지현
온수정 이영숙 최규익 한은숙

회장 안효종, 부회장 이민규, 총무 박광재, 회계 장현신 방혜인,
서기 이선숙 김호경

•1997년

부장 : 안송엽, 부감 : 김영선, 총무 : 최규익

교사 : 김옥자 김옥희 성영자 양지현 온수정 이영숙 홍양수

회장 이은철, 부회장 안민국, 서기 김화진 이선영, 회계 김호경 임샘이,
총무 이상화

•1998년

부장 : 김영선, 총무 : 이종인

교사 : 김옥희 박미영 성영자 이영숙 최규익 한은숙

회장 김성호, 부회장 임세미, 서기 이선영 김미정, 회계 안수경 유보람,
총무 이남훈

•1999년

부장 : 김영선, 총무 : 이종인

교사 : 김옥희 김현자 노윤숙 이미재 이영숙 최규익 한은숙

회장 김미정, 부회장 박재용, 서기 채민아, 회계 김민성A 신상오, 총무 최용호

■고등부

•1991년

부장 : 이희성

교사 : 권경순 김기영 김영선 온호섭 원도연 임구영

회장 박상봉, 부회장 손은주, 서기 정수희, 회계 임미정, 총무 송민호

•1992년

부장 : 온호섭

교사 : 권경순 김기영 김영선 박정혜 원도연 이희성 임구영 황의욱

회장 김신, 부회장 김미란, 서기 안진경, 회계 진선미, 총무 이현욱

•1993년

부장 : 황경주

교사 : 권경순 성민식 안길권 안선미 오승호 이감철 이미성

회장 최영수, 부회장 유별, 서기 하승완 이현준, 회계 신윤희 박상미1,

총무 김철

•1994년

부장 : 황경주

교사 : 김미순 김영주 박홍중 성민식 안길권 오승호 원지현 이미성

회장 김호산, 부회장 송은주, 총무 이영호, 서기 이현규 안태경,

회계 안선아 진선화

•1995년

부장 : 진교헌, 총무 : 성민식

교사 : 김구태 김세영 박홍중 안길권 온기천 이미성 황의석

회장 이은식, 부회장 박상희, 총무 이호준, 서기 박지용 박상희,

회계 김매선 권현정

•1996년

부장 : 진교헌, 총무 : 온기천

교사 : 김경숙 김구태 김기영 김세영 안길권 안종복 임미정 장혜영 황의석

회장 정희진, 부회장 정인실, 총무 서동혁, 회계 유아름 전승혜,

서기 임수미 김지영

•1997년

부장 : 진교헌, 총무 : 온기천

교사 : 고도욱 김구태 김기영 김세영 안길권 안종복 원지현 유기정 장혜영

회장 조성만, 부회장 김영미, 서기 김두실 이경임, 회계 정희훈 윤지원,

총무 김희근

•1998년

부장 : 김병규, 총무 : 성민식

교사 : 고도욱 김대중 김세영 소환태 심상철 안종복 유기정 이진산

회장 강신정, 부회장 방민영, 서기 양선경 김교은, 회계 이선숙 장현신,

총무 이대준

•1999년

부장 : 김병규, 총무 : 정진섭

교사 : 김세영 박영선 성민식 안길권 원도연 이진화 허연

회장 김태훈, 부회장 김화진, 서기 방혜인 전화선, 회계 이은철 김호경,

총무 양귀희

4. 자치회

1) 청년회

(1) 운영

1990년 12월 30일 당회는 1·2청년부 성경공부 모임을 통합하고, 성경공부를 담임목사가 담당하도록 결의하였다. 이에 대해 청년들이 반발하고, 임원들이 전원 사퇴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였다. 결과적으로 청년부 조직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1991년 연말에 다시 한번 논쟁이 벌어졌다. 11월 13일 당회에서 1·2청년부 조직 통합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12월 1일 당회에서 재적 2/3 이상의 출석이 이루어



청년회 주보 자료

지지 않을 시 예산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청년부 조직의 유지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논쟁의 배경에는 1980년대 후반부터 진행되어 온 청년부의 사회참여 지향적 성경공부와 교회 청년들의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교회 장년층의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청년들은 열심히 공부한 만큼 교회 봉사에도 최선을 다해 참여하였고, 동시에 각 대학에서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 청년들은 대학교 내에서 기독교학생운동을 표방했지만, 어른들은 기독교학생운동과 일반학생운동을 구별하기 어려웠고, 교회 청년들이 학생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었다. 안창엽 목사는 양인석 전도사와 청년들의 시대적 고민과 교회 변혁에 대한 갈망을 잘 알고 있었기에 청년들의 진보적이고, 사회 참여적인 성경공부를 용인해 주고 있었다. 그러나 당회에서 이 문제로 커다란 논쟁이 벌어졌고, 당분간 양인석 전도사는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에만 전념하도록 하고, 청년부는 최만규 전도사가 담당하되 담임목사가 직접 성경공부 모임을 인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청년들은 당회의 결정을 수용하는 한편, 이전의 토요일성경공부 모임을 교회 밖에서 진행하며 사회참여적 영성을 이어나갔다. 마침 양 전도사는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던 터라 당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유학 준비에 전념하다가, 1991년 말 교육전도사직을 사



청년의 밤(1996년)

입하고 1992년 5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1997년부터 청년부는 다시 한번 변화를 시도하였다. 성경공부 모임 형식으로 진행되던 청년들의 활동 모임을 ‘주일 3부 예배’로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1997년 1월 5일부터 주일 오후 2시에 청년 중심의 주일 3부 예배가 시작되었다. 이때의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이 주일 3부 예배 시 드러지는 청년들의 헌금을 청년부 재정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었다. 1997년 1월 5일 당회는 3부 예배 헌금을 청년부에서 사용하도록 하면서, 교회 재정부터의 지원을 2청년부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후 청년부의 재정 규모가 비약적으로 발전한다. 1청년부의 경우 1996년 결산 2,300,000원에서, 1997년 결산 6,039,600원, 1998년도 결산 4,360,550원, 1999년 결산 5,864,880원, 2000년 결산 6,596,300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2청년부의 경우 1998년 결산 4,893,880원(교회 재정 지원 113만 원)이었다. 청년부의 주일 3부 예배 시도는 1998년도부터 주일밤찬양예배가 오후 2시로 변경됨에 따라 장소를 옮기고 담임목사의 설교가 빠짐으로써 사실상 ‘주일 3부 예배’가 아닌 ‘청년부 예배’로 바뀌었다.

(2) 활동

청년부의 중요한 전통이 되어 있는 청년문화제와 청년주일 성인식 행사가 이 시기에 정착되었다. 청년문화제는 1994년 11월 20일 후보에 처음 등장하는데, 12월 4일 주일 오후의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12월 6일까지 진행되었다. 국산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을 비교 전시하고, 국산 농산물과 개량 한복, 한지, 전통차, 먹거리 등을 판매하면서 우리 것의 소중함을 알리는 행사였다.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를 탄생시키면서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시대의 개막을 알린 우루과이 라운드가 1994년 4월 최종 타결되면서,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인해 국내 농업이 붕괴될 우려가 깊어지던 시기의 문제의식을 신앙적 관점에서 표출한 것이었다. 1995년에도 같은 문제의식을 이어가며 10월 21일 “유통과정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28~29일에 농산물 직거래 및 먹거리 잔치를 벌였다.

1996년에도 비슷한 행사가 진행된 듯한데, 11월 10일 주일오후예배를 청년문화제 마감예배로 드린다는 광고만 남아있다. 그런데 11월 3일 정기당회 회의록에는 당시 청년문화제에서 사물놀이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허락되었다. 1997년에는 11월 1~2일 ‘움트는 살림의 문화’를 주제로 청년문화제를 열었다. 장터 프로그램을 지속하면서 헌옷, 신발, 생활용품, 폐지 등을 모아 북한동포돕기 운동에 참여하였다. 북한의 연이은 흉년과 경제적 어려움을 계기로 확산된 남북나눔운동(1992년 12월 시작)을 배경으로 한 행사였다. 1998년의 주제는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10월 1일~11월 1일), 1999년의 주제는 “새 술은 새 부대에”(11월 12~14일)였다. 한편 청년주일 및 성년식 행사는 1995년 5월 21일 처음 등장하며, 이후 해마다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이 두 가지 행사가 여름의 수련회, 장청을 통한 에큐메니컬 활동과 함께 이 시기 청년부 활동의 중요한 축이 되었다.

청년들의 역사참여 활동은 이 시기에도 장청 전국연합회, 전북노회연합회, 전주동시찰 연합회와의 협력과 참여 속에 지속되었다. 특히 본 교회 청년인 이감철



청년 수련회(1990년)



1996년 장청 전국연합회 회장 이감철(현재 장로)

이 1996년 장청 전국연합회 회장을 맡은 데 이어, 1998년 2월 20~21일 대전 한밭교회에서 열린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EYCK, Ecumenical Youth Council in Korea)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어 전국 단위의 기독교청년운동을 이끌었다. EYCK는 1976년 교회청년협의회(YYCK)의 후신으로 창립되어 인권, 정의, 민주화, 평화, 생명 등의 가치를 추구하던 에큐메니컬 청년운동 기구였다.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청년회전국연합회(장청)와 한국기독교장로회 청년회전국연합회(기청)를 중심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회전국

연합회, 기독교한국루터회 청년회연합회 등이 연대하였다. 전주강림교회 청년회가 에큐메니컬 기독교청년운동의 한복판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밖에도 이 시기 청년회는 장청의 시찰회 연합회 및 노회연합회 안에서 다양한 직책을 담당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교회 내에서는 이전에 「광주 민주화 항쟁」이라는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던 것에 이어서, 1991년도에 「6.25 특강 자료집」과 「8.15 특강 자료집」을 만들어 배포하였다. 1992년에는 「4.19 신앙 강좌」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면서 현대사에 대한 교회의 신앙적 성찰을 도모하였다. 1991년 4월 26일에 발생한 명지대 학생 강경대의 시위 중 타살 사건을 계기로, 고난받는 이들을 위한 금식 기도 모임을 갖기도 하고, 노동절이나 5.18과 같은 중요한 역사 절기에는 계기 교육도 이어갔다. 이러한 역사참



청년회 활동 자료들

여 활동은 1995년부터 시작된 청년문화제를 통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와 농촌의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 북한의 경제적 위기를 계기로 한 나눔운동 등으로 이어졌다. 1995년 7월 10~15일 화산면 운곡리 석천마을에서 진행한 농촌 선교 봉사 활동이나 1994년 10월 29일 2청년회가 주관한 불우아동 돕기 일일 찾집과 같은 활동 역시 시대의 아픔에 동참하고자 하는 열정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한국 사회 전반에서 진행되고 있던 청년학생운동의 퇴조와 맞물리며 청년부 활동의 기조는 교육과 친교 활동 쪽으로 선회하는 방향을 그리고 있었다. 한편, 교회가 지향하고 있던 '선교와 사랑의 현장' 운동에 청년회 역시 동참하였다. 1992년 1청년부가 남원 매요교회(5월 31일)와 남원 방동교회(6월 26일)를 방문하고, 2청년부가 무주 안성의 진도교회(6월 19일)를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자매결연된 교회를 방문하여 교류 협력을 이어갔다.

(3) 연도별 조직 현황

• 1991년

1청년회 부장 : 류시영

회장 이감철, 부회장 이미영, 총무 성민식, 서기 이인자, 회계 김성녀

2청년회 부장 : 김기범

회장 채수진, 부회장 허선숙, 총무 송수정, 서기 안진희, 회계 김경임

• 1992년

1청년회 부장 : 황경주

회장 오승호, 부회장 이미경, 총무 황의욱, 서기 최혜숙, 회계 이영미

2청년회 부장 : 안송엽

회장 안진상, 부회장 허연, 총무 최자미, 서기 황주희, 회계 김성남

• 1993년

1청년회 부장 : 안송엽

회장 홍성민, 부회장 이인자, 총무 양태섭, 서기 허선숙, 회계 황주희

2청년회 부장 : 최만규

회장 안진상, 부회장 최자미, 총무 정호영, 서기 신송춘, 회계 박미영

• 1994년

1청년회 부장 : 안송엽

회장 오승호, 부회장 장애란, 총무 원지현, 서기 최혜숙, 회계 이미경

2청년회 부장 : 온성진

회장 김혜영, 부회장 김성남, 총무 황의석, 서기 양은영, 회계 오재정

• 1995년

1청년회 회장 온기천, 부회장 최자미, 총무 양재필, 서기 이영훈, 회계 안효정

2청년회 회장 황의석, 부회장 양은영, 총무 임미정, 서기 하승완, 회계 오재정

• 1996년

1청년회 부장 : 황경주

- 회장 성민식, 부회장 최자미, 총무 허연, 서기 김태용, 회계 양정운
 2청년회 부장 : 이정석
 회장 임미정, 부회장 박정주, 총무 히승완, 서기 신윤희, 회계 박상미1
- 1997년
 - 1청년회 부장 : 황경주
 회장 허연, 부회장 박미영, 총무 최자미
 - 2청년회 부장 : 이정석
 회장 박정주, 부회장 안진경, 총무 신윤희, 서기 유별, 회계 박상미
 - 1998년
 - 1청년회 부장 : 황경주
 회장 안진상, 부회장 양은영, 총무 김대중, 서기 임미정, 회계 이현준
 - 2청년회 부장 : 이정석
 회장 박정주, 부회장 안미영, 총무 신윤희, 서기 국영란, 회계 박상미A
 - 1999년
 - 1청년회 부장 : 안송엽
 회장 황의찬, 부회장 신송춘, 총무 양은영, 서기 김혜영, 회계 정호영
 - 2청년회 부장 : 황경주
 회장 신윤희, 부회장 박상미, 총무 전승혜, 서기 김현중, 회계 박상희

2) 남선교회와 여전도회

(1) 조직과 활동

1991~1992년 2개로 활동하던 남선교회는 1993~1995년에 3개로 그리고 1996년에 4개로 늘었다가 1997~1998년 3개, 1999년 2개로 다시 줄어들었다. 여선교회의 경우 1991~1992년 4개에서 1993~1998년에는 5개 그리고 1999년에는 6개로 나뉘었



여전도회 수련회(1992년)

다. 1990년대 후반 남선교회의 숫자를 줄인 것은 활동의 효율성을 고려한 조정이었을 것이다. 선교회를 구분한 연령 기준은 1993~1995년을 기준으로 할 때, 남선교회는 1남 46세 이상, 2남 38~45세, 3남 37세 이하였고, 여선교회는 1여 51세 이상, 2여 46~50세, 3여 41~45세, 4여 36~40세, 5여 35세 이하였다. 1993년부터 1995년까지 연말 당회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노인선교회로 조직하지는 논의가 있었지만, 이 시기 내내 조직상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남선교회와 여전도회 모두 1995년부터 부서 조직에 농촌선교부와 지역사랑부를 포함하기 시작했다. ‘선교와 사랑의 현장’을 향한 교회의 정책적 발걸음에 따라 1992년부터 자매결연 교회를 방문하여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이 자치기관들의 중요한 활동축이 되기 시작하였는데, 1994년 11월 7일 당회의 결의에 따라 1995년부터는 그것을 조직 형태에도 반영하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여전도회의 경우 1995년부터, 줌도리와 같은 방식으로 쌀을 모으던 ‘성미부’가 사라진 것도 눈에 띈다. ‘성미’는 1920년대 여전도회 운동 초창기부터 시작되어 여전도회 활동의 물적 토대가 되고,

후에는 어려운 시절 목회자들에 대한 생활 보조와 궁핍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의 용도로 그리고 다시 교회의 주일 점심 식사를 통한 교인들의 교제와 공동체성 강화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던 것이었다. 그런 성미가 이제는 그 효용을 다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이 시기 내내 자치 기관들의 월례회는 매월 넷째 주일로 고정되었고, 기관별 연 1회의 헌신예배도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1992~1993년에는 주일밤찬양예배의 특송을 기관별 윤번으로 담당하기도 하였다. 계속해서 기관 수를 늘려가던 여전도회는 이 시기 들어 수련회 등을 통해 연합을 도모하기 시작하였다. 1992년 7월 10일 상관면 의암리 계월교회당에서 “그리스도의 문화를 이 땅에”라는 주제로 열린 4개 여전도회 연합수련회가 그 시작이었다. 1995년 8월 18일에도 “함께 이루는 좋은 세상”이라는 주제로 신기교회당에서 열렸다. 이후 매년 계속되었는데, 신기교회당이 장소로 선택되는 경우가 많았다. 1995년과 1996년에는 1월에 임역원 수련회를 연합으로 갖기도 하였다.



남·녀선교회(1994년)



남·녀선교회(1995년)

한편, 남선교회는 종종 교회 행사를 주관하였다. 1992년 6월 7일의 ‘제3회 가족 찬양대회’ (2남선교회), 1994년 10월 30일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가족찬양의 시간’ (2남선교회), 1994년 11월 20일과 1995년 11월 26일 성경퀴즈대회(3남선교회) 등이다. 1994년 4월 23일에는 3남선교회가 “그리스도인의 자녀교육”을 주제로 부부 성경공부 시간을 마련하였다. 1999년 8월 21일에는 1남선교회가 “남선교회 임무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하여 부부 수련회를 가졌다. 이런 활동의 결과 1999년 8월 23~25일 열린 전국남선교회연합회 총회에서 전주강림교회 남선교회를 전국 모범남선교회로 선정하여 표창하였다.

(2) 남선교회의 연도별 조직 현황

• 1991년

1남: 회장 안송엽, 부회장 이희성, 총무 김기범, 서기 이기경 손덕규,
회계 임창식 조규상

2남: 회장 김영선, 부회장 전광호, 총무 안길권, 서기 김종희 강형희,
회계 이영규 양병재

• 1992년

1남: 회장 허용욱, 부회장 박홍종, 총무 진교현 김청옥, 서기 이기경 김수일,
회계 최정근 오광섭

2남: 회장 이정석, 부회장 이요셉, 총무 김경식, 서기 이성철 안길권,
회계 강형희 김기영

• 1993년

1남: 회장 박홍종, 부회장 최정근, 총무 진교현 이준홍,
서기 이희성 임건웅, 회계 이기경 김청옥

2남: 회장 양병재, 부회장 김종희, 총무 김경식, 서기 이성철 정태희,
회계 이한규 이요셉

3남: 회장 안길권, 부회장 김영산, 총무 임구영, 서기 서기원 안병용,
회계 성정수 김기영

• 1994년

1남: 회장 이희성, 부회장 이기경, 총무 전광호 김기범,
서기 김영선 최경춘, 회계 양병재 최정근

2남: 회장 김종희, 부회장 정태희, 총무 김경식, 서기 이한규 이한창,
회계 이연우 이요셉

3남: 회장 안병용, 부회장 성정수, 총무 임구영, 서기 김기영 박용규,
회계 류형열 황양우

•1995년

1남 : 회장 황경주, 부회장 양병택, 총무 양병재 박성대, 서기 정인기 김창식,
회계 전광호 김청옥

2남 : 회장 이요셉, 부회장 이성철, 총무 김종희, 서기 이한규 양희상,
회계 이연우 심규열

3남 : 회장 성정수, 부회장 임구영, 총무 배영국, 서기 류형열, 회계 신을재

•1996년

1남 : 회장 은호섭, 부회장 장지석, 총무 이희성, 서기 권윤옥, 회계 박홍중

2남 : 회장 전광호, 부회장 정종섭, 총무 김영선, 서기 정인기 김상근,
회계 김종희 양병재

3남 : 회장 정국양, 부회장 이한규, 총무 안병용, 서기 김구태, 회계 강형희

4남 : 회장 김기영, 부회장 황병운, 총무 윤한성, 서기 배영국, 회계 이진산

•1997년

1남 : 회장 장지석, 부회장 정인기, 총무 최경춘, 서기 권윤옥, 회계 박홍중

2남 : 회장 이한규, 부회장 강형희, 총무 이연우, 서기 김영선 김구태,
회계 김종희 이요셉

3남 : 회장 황병운, 부회장 이진산, 총무 안병용, 서기 배영국, 회계 황양우

•1998년

1남 : 회장 정인기, 부회장 김병규, 총무 전광호, 서기 최경춘, 회계 김영선

2남 : 회장 강형희, 부회장 이연우, 총무 이한규, 서기 김동수 김구태,
회계 정국양 김종희

3남 : 회장 이진산, 부회장, 최규익, 총무 황병운, 서기 안효초

•1999년

1남 : 회장 김병규, 부회장 김영선, 서기 박홍중, 총무 전광호, 회계 박석승

2남 : 회장 이연우, 부회장 심규열, 총무 강형희, 서기 안길권 황양우,
회계 김종희 신을재

(3) 여전도회의 연도별 조직 현황

• 1991년

- 1여: 회장 신은순, 부회장 박영자, 총무 신향용, 서기 염번자 이영자,
회계 황등자 설순자
- 2여: 회장 김현순, 부회장 이혜정, 총무 배인순, 서기 이정순 고정희,
회계 김영애 백 봉
- 3여: 회장 김옥자, 부회장 김옥희, 총무 권순님, 서기 이금희 이선옥,
회계 신운자 허명순
- 4여: 회장 양지순, 부회장 고명순, 총무 박희영, 서기 정성례 김세순,
회계 박원숙 김미애

• 1992년

- 1여: 회장 이강인, 부회장 김혜숙, 총무 신향용, 서기 박정순 박순규,
회계 황등자 설순자
- 2여: 회장 이혜정, 부회장 김순옥, 총무 배인순, 서기 이정순 이선옥,
회계 김영애 허명순
- 3여: 회장 양지현, 부회장 이금희, 총무 김옥희, 서기 박찬숙 전선옥,
회계 권순님 이계화
- 4여: 회장 고명순, 부회장 김세순, 총무 박희영, 서기 정성례 전을자,
회계 정명숙 박경희

• 1993년

- 1여: 회장 신향용, 부회장 설순자, 총무 신은순, 서기 김영자, 주소영,
회계 이영자 양순님
- 2여: 회장 염번자, 부회장 김현순, 총무 황등자, 서기 이정순 장귀순,
회계 김혜숙 이상순
- 3여: 회장 김순옥, 부회장 조귀자, 총무 김옥자, 서기 이선옥 김재순,
회계 허명순 서덕렬

4여: 회장 박찬숙, 부회장 이순이, 총무 양지현, 서기 김옥희 박희자,
회계 박원숙 전선옥

5여: 회장 김세순, 부회장 박미애, 서기 고명순 김현경,
회계 이종순 김현숙

•1994년

1여: 회장 설순자, 부회장 유계순, 총무 이윤례, 서기 황등자 김차남,
회계 양순임 이구일

2여: 회장 김혜숙, 부회장 김현순, 총무 박정순, 서기 이정순 백 봉,
회계 장귀순 김영애

3여: 회장 조귀자, 부회장 이선옥, 총무 김순옥, 서기 송순금 이혜정,
회계 허명순 강묘자

4여: 회장 이순이, 부회장 권순임, 총무 박찬숙, 서기 박원숙 장정자,
회계 김정희 이봉심

5여: 회장 박미애, 부회장 김현숙, 총무 고명순, 서기 이남순 이미재,
회계 전을자 김현경

•1995년

1여: 회장 유계순, 부회장 이윤례, 총무 김정자, 서기 염번자 김차남,
회계 양순님 이구일

2여: 회장 박정순, 부회장 김영애, 총무 김혜숙, 서기 이기화 김연희,
회계 배인순 오봉애

3여: 회장 이선옥, 부회장 허명순, 총무 이혜정, 서기 송순금 이복철,
회계 김희숙 신정자

4여: 회장 권순임, 부회장 박원숙, 총무 이순이, 서기 김정희 정영옥,
회계 노운숙 배용순

5여: 회장 전을자, 부회장 전선희, 총무 박미애, 서기 유혜숙 이은진,
회계 최수경 배예숙

•1996년

- 1여: 회장 이윤례, 부회장 민현숙, 총무 양순님, 서기 염번자 김차남,
회계 이구일 정귀임
- 2여: 회장 배인순, 부회장 김영애, 총무 박정순, 서기 김선주 이정순2,
회계 이정옥 유말래
- 3여: 회장 서계순, 부회장 송순금, 총무 이선옥 김재순,
서기 김옥희 김종숙, 회계 김희숙 신정자
- 4여: 회장 김정희, 부회장 정명숙, 총무 양지순, 서기 최옥주 노윤숙,
회계 이현자 장정자
- 5여: 회장 전선희, 부회장 유혜숙, 총무 박미애, 서기 하영순 김양남,
회계 이미재 김연숙

•1997년

- 1여: 회장 민현숙, 부회장 양순님, 총무 염번자,
서기 고임순 박혜영, 회계 이구일 정귀임
- 2여: 회장 김영애, 부회장 오봉애, 총무 배인순,
서기 김선주 이점덕, 회계 이정옥 백 봉
- 3여: 회장 송순금, 부회장 노윤숙, 총무 이순이 김종숙,
서기 김옥희 이난희, 회계 양지현 김정희
- 4여: 회장 정명숙, 부회장 최옥주, 총무 김세순, 서기 경순이 강춘자,
회계 김영례 박경희
- 5여: 회장 한은숙, 부회장 이남순, 총무 이미재, 서기 서예경 박영혜,
회계 김현경 김연숙

•1998년

- 1여: 회장 양순님, 부회장 이구일, 총무 염번자, 서기 박혜영 고임순,
회계 정귀임 장귀순
- 2여: 회장 오봉애, 부회장 이정옥, 총무 김영애, 서기 이점덕 성영자,

회계 백 봉 조귀자

3여: 회장 전선옥, 부회장 양은순, 총무 정영옥, 서기 양지순 박달수,
회계 김옥희 김종숙

4여: 회장 최옥주, 부회장 김영례, 총무 정명숙, 서기 오해영 황은미,
회계 박미애 태성옥

5여: 회장 김영님, 부회장 김연숙, 총무 한은숙, 서기 이미재 이정운,
회계 박재순 염숙경

•1999년

1여: 회장 이구일, 부회장 이강인, 총무 유계순, 서기 신정애 고임순,
회계 정귀임 서경자

2여: 회장 유귀민, 부회장 박혜영, 총무 백영란, 서기 이정순 박정순,
회계 장귀순 최복순

3여: 회장 김정자, 부회장 안종복, 총무 송순금, 서기 김순옥 서덕렬,
회계 조귀자 이선옥

4여: 회장 전순례, 부회장 양은순, 총무 전선옥, 서기 이난희 박달수,
회계 김옥희 장정자

5여: 회장 김영례, 부회장 경순이, 총무 박미애, 서기 김명자 박금순,
회계 김종숙 김해자

6여: 회장 김연숙, 부회장 강인숙, 총무 김영님, 서기 김현경 박재순,
회계 한은숙 옥인정

Ⅲ. 강림 공동체의 삶

1. 예배

1) 주일예배와 성례전

이 시기 주일예배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1부 예배와 2부 예배로 나뉜 것과 3부 예배가 시도되었던 점이다. 예배 참석자가 계속해서 증가하자 1996년 1월 7일부터 1부 예배(8시 30분)와 2부 예배(11시)로 나누어 예배하게 되었다. 이 시기 주일예배 참석자는 평균 370명 선이었다. 이 숫자는 1999년 460명 선으로 증가하였다. 1997년부터는 주일 오후 2시의 청년 모임을 ‘주일 3부 예배’로 변경하여 진행함으로써 3부 예배 체제가 되었다. 3부 예배의 예배위원은 청년들이 담당하였다. 이 3부 예



주일예배 준비 모습

배는 2001년 7월까지 유지되었다. 한편, 1995년 12월 2일 당회는 ‘예배위원은 직분이나 성별과 관계없이 등단하도록 한다’는 취지의 결의와 ‘죄의 고백 후 1분 정도 개인기도 시간을 넣을 것’, ‘성경봉독은 안수집사와 권사가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현재의 예배 모습에 현저히 다가서게 하는 결정이었다.

‘하나님의 초청-말씀 속에서의 만남-세상으로의 파송과 복주심’으로 이어지던 예배순서의 대별과 세부 진행 순서가 이전과 동일한 가운데, 1991년 1월 20일부터 헌금 방식이 바뀌었다. 예배 중 헌금 시간에 헌금위원이 헌금바구니를 이용하여 헌금을 수거하던 방식에서 예배당 입장 시 헌금함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예배순서 중의 ‘헌금’이 ‘예물봉헌’으로 바뀌었다. ‘성찬예식’과 ‘예물봉헌’의 순서도 2월 3일 처음으로 ‘헌금 후 성찬’의 방식에서 ‘성찬 후 봉헌’의 방식으로 바뀌었다. 1995년부터는 “주일낮예배순서” 면에 교회력 절기를 표기하기 시작하였다.

1996년에는 ‘송영-오늘의 위탁-축도’로 이어지던 예배 마침부에 변동이 생겼다. ‘오늘의 위탁’이 ‘파송의 말씀’으로 변경되었다가, 5월 5일 예배부터는 파송의 말씀이 순서에서 빠지고 ‘송영-축도’로 예배를 마치기 시작하였다. 파송의 말씀은 6월 30일부터 다시 회복되었다가 8월 첫 주일부터 생략되었다. 파송의 말씀은 1997년 8월 10일부터 다시 회복되었는데, 이때부터는 ‘송영’ 순서가 빠지게 되었다. 1997년에도 예배순서의 변화가 계속되었다. 이전까지 ‘봉헌기도’ 직후에 있었던 ‘성도의 소식’이 5월 18일부터 사라졌다가 11월 16일부터 ‘교회의 소식과 성도의 교제’라는 이름으로 축도 뒤로 들어가면서 예배순서 밖으로 분리되었다. 1997년 11월 30일부터는 예배순서에서 ‘죄의 고백’과 ‘용서의 선언’ 순서가 빠지기 시작하였다. 1999년에는 3대별의 명칭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파송하면서 복을 주십니다”와 같이 문장형으로 바뀌었다.

세례예식은 계속해서 봄과 가을에 행하였다. 1991년에는 3월 24일과 9월 29일, 1992년에는 4월 12일과 9월 27일, 1993년에는 4월 25일과 9월 26일, 1994년에는 3월



세례예식 후(1998년)

27일과 11월 6일, 1995년에는 4월 9일과 11월 5일, 1996년에는 4월 28일과 10월 6일, 1997년에는 3월 23일과 11월 9일, 1999년에는 5월 23일과 10월 31일에 세례예식을 행하였다. 1992년 6월 7일 당회는 새신자공부 12주 이상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향후 학습 및 세례교육을 면제하기로 결의하였다. 세례반은 사람에게 하얀 가운을 입히고 꽃다발을 주어 축하하는 일은 1996년 4월 28일 세례예식 때부터 시작되었다. 교회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의례임을 강조하려는 의도였다. 세례예식은 ‘세례식’이라는 명칭으로 성경봉독 직후에 행하였으며 1999년에는 ‘세례성례전’으로 명칭 변경되었다. 1999년부터 성찬예식도 ‘성찬성례전’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 밖에 성찬예식에 있어서의 변화는 1992년 10월부터 ‘성찬에서의 만남’이라는 대별(大別) 아래 ‘성찬으로의 초대-찬송-제정의 말씀-기도-떡과 잔을 나눔-감사의 기도-찬송’으로 그 순서가 상세해졌다는 점이다.

2) 주일 오후

주일 오후 시간에 드러지는 예배의 명칭을 둔 혼선이 지속되었다. ‘주일밤찬양 예배’로 불리던 이 예배의 시간이 1988년부터 오후 4시로 변경된 바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명칭은 전통적으로 사용해 오던 대로 유지하면서 광고 등에서는 ‘석양예배’라는 새로운 명칭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 예배의 공식 명칭이 처음으로 변경된 것은 1996년 11월 24일 자 주보에서다. 바뀐 명칭은 ‘주일석양찬양예배’였다. 이때 예배 순서 위에 “먼저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시다”라는 문구가 들어갔는데, 1996년 3월 17일에 조직된 경배와찬양단의 활동이 시작되면서 생겨난 변화라고 보여진다. 이 예배의 명칭은 1996년 마지막 주일부터 다시 ‘주일밤찬양예배’로 회귀하여 1997년 내내 같은 이름으로 사용하였다. 1998년 상황은 파악할 수 없고, 1999년에는 ‘주일찬양예배’로 정착되었다.

이렇게 명칭의 변경 과정을 거친 주일찬양예배 시간에는 제직회와 교회학교 각 부서, 청년회, 남선교회, 여전도회 각 기관의 헌신예배가 연 1회씩 진행되었다. 절기 프로그램을 비롯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진행되는 시간이기도 했다. 부활절, 창립 기념주일,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 주요 절기의 축하 행사들과 찬양대회, 성경퀴즈대회와 같은 친교 행사들, 청년문화제 개막 혹은 폐막, 교회학교 진급예배, 외부 강사를 초빙한 특강이나 간증 등이 그것이다. 헌신예배가 없는 주에는 교회학교 부서별 교사나 학생들, 혹은 각 선교회가 돌아가며 특송에 참여하였고, 1993년부터는 ‘어머니성가대’가 함께 찬양을 담당하였다. 1997년부터는 ‘국악 성가대’와 ‘경배와찬양단’도 함께 참여하였다. 예배시간은 오후 4시를 유지하다가 1998년부터 오후 2시로 변경되었다. 1998년 8월 23일 당회는 ‘9월부터 석양예배시간을 저녁 7시 30분으로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그 후의 상황은 알 수 없고, 1999년에는 전과 같이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렸다. 1999년을 기준으로 볼 때, 1시 50분부터 2시 15분까지 경배와 찬양단이 찬양을 인도하였고, 매월 셋째 주에는 청년부와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가락 찬송 배우기’ 시간을 가졌다.

3) 수요성서학교

수요성서학교는 1991년 10월 9일부터 구역별 특송을 시작하였다. 1993년 말부터는 가족별 특송이 진행되다가 1994년 4월 13일부터 구역 특송으로 복귀한다. 9월 14일부터 잠시 기관별 특송을 진행한 뒤에 1995년부터 다시 구역별 특송으로 이어나갔으며, 1996년에는 수요성서학교 시간에 구역별로 앉기를 권하기도 하였다. 그 명칭에 걸맞게 수요성서학교 시간에는 신앙교육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전부터 이어오던 빌립보서 강해를 마치고 1991년 4월 3일부터는 골로새서 강해, 9월 25일부터 빌레몬서, 10월 30일부터 갈라디아서 강해가 이어졌다. 1992년 4월부터 신앙고백의 내용들과 가정, 죽음, 인생관 등에 관한 주제 강해가 있었고, 10월부터는 출애굽기 강해가 시작되었다. 이어서 1993년 중반부터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여 1994년까지 이어졌다. 1994년 10월 19일부터 전도에 관한 강좌가 있었고, 1995년 1월 4일부터 빌립보서, 5월 24일부터 히브리서를 강해하였다.

1996년에는 1월 10일부터 예배, 3월 6일부터 기도, 5월 8일부터 은사, 7월 3일부터 구원의 확신, 9월 4일부터 청지기 교육, 11월 6일부터 선교와 사랑 등의 주제 강해로 진행되었다. 1997년에도 1월 1일부터 영성 훈련, 3월 5일부터 삶의 현장 연구(십계명 강해), 5월 7일부터 행복한 가정, 7월 2일부터 총회 교육주제 ‘주님은 우리의 화평’, 9월 3일부터 사도신경, 10월 15일부터 제직훈련 등으로 주제별 공부ja 계속되었다. 1997년 12월 3일 창세기를 시작으로 하여 구약과 신약의 각 권을 개관하는 공부가 시작되어, 1998년을 지나 1999년 상반기까지 이어졌다. 1999년 6월 30일부터는 다시 은사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고, 11월 3일부터 제직수련회로 진행하였는데 2회를 진행한 후 안창엽 목사가 소천함으로써 마무리되지 못하였다.

4) 각종 기도회

5시에 모이던 새벽기도회가 1995년 6월 18일~9월 2일 잠시 4시 30분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5시로 복귀하였다. 금요기도회의 경우, 1992년도에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여전도회 주관으로 심야기도회가 진행되었는데, 1993년부터는 셋째 주 금요일에 ‘교구 예배’가 들어가면서 금요심야기도회는 넷째 주로 이동되었다. 특별기도회들도 있었다. 1991년에는 8월 12~18일 “새롭게 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기관별로 순서를 담당하며 특별새벽기도회가 있었고, 1991년 12월 30일~1992년 1월 5일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기 위한 특별새벽기도회’가 실시되었다. 1992년 4월 12~18일 기관별로 예배를 담당하는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가 있었고, 1995년 12월 13일부터 2주간의 특별새벽기도회가 있었다. 1996년에는 10월 21~26일에는 오전 10시~11시 30분 수험생과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를 가졌다. 1999년에도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를 진행하였다. 1999년 6월 20일부터 한 주간은 ‘민족 화해의 날 공동기도주간’으로 지켰다. 1999년 11월 15일 안창엽 목사가 병원에 응급 후송되면서 24시간 릴레이 기도가 연일 이어졌다.

5) 예배 관련 기구들의 활동

1991년부터는 예배 관련 조직에서 성단위원이 없어졌다. 그래서 성가대, 헌금위원, 안내위원으로 이 시기 예배 관련 기구들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헌금위원과 안내위원은 변함없이 월별 담당자를 연초에 일괄 편성하였다. 1996년부터는 주일예배가 1부와 2부로 나뉘면서, 헌금위원과 안내위원 역시 1부와 2부로 나뉘었다. 찬양 관련 기구들은 눈에 띄게 증설되었다. 먼저 ‘어머니성가대’의 활동 모습이 1993년부터 포착된다. 어머니성가대 연습이 오후 2시 30분 성가대실에서 있다는 후보 광고가 실렸고, 이후 주일오후예배의 특송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교회 조직도 상으

로는 1996년부터 들어가기 시작했지만, 그 조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1994년에는 현악부가 조직되었다. 1월 16일 당회에서 성가대 소속으로 조직을 허락하였고, 교회 수첩 상에는 1995년도 ‘관현악부’에 안선미 양옥경 이현경 유은나가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다. 1996년에는 주일예배가 1부 예배, 2부 예배로 나뉘에 따라 성가대도 1부와 2부로 나뉘게 되었다. 2부 성가대는 기존의 성가대를 유지하고, 1부 성가대는 지휘에 이진산 집사, 반주에 양혜진 선생이 배치되었다. 반주는 이듬해부터 김효정A 선생이 담당하였다. 1997년까지는 한 성가대장 아래 두 성가대를 두는 방식으로 가다가, 1998년부터 1·2부 각각의 성가대장을 둬으로써 조직의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졌다.

‘경배와찬양단’이 1996년에 조직되었다. 1997년 교회 수첩의 연혁은 1996년 3월 17일 처음으로 강림찬양선교단이 활동을 시작했음을 기록하고 있고, 1996년 7월 14일 주보에 ‘경배와찬양선교단’ 단원을 모집하는 광고가 실렸다. 이어 1996년 12월 20일 당회는 찬양선교단의 명칭을 ‘경배와찬양단’으로 정하고 드럼 사용 문제를 논의하였다. 그리고 1997년부터 교회 조직에 포함되기 시작하였다(첫 구성원: 김구태 고도욱 노윤숙 양지순 최규익 안효초 박미영 김혜영 전순례 유별 박상미A 박상미B 김철 이준 송은주).

1980년대 말부터 전자악기와 드럼을 사용하며 워십 댄스를 결합하는 경배와 찬양 운동이 불붙기 시작하여 1990년대 초반에 이미 폭발적인 확산이 일어났었던 것을 감안하면, 전주강림교회에서 경배와찬양단 활동은 상당히 뒤늦게 시작된 편이었다. 1999년의 예로 보았을 때, 경배와찬양단은 오후 1시 50분부터 2시 15분까지 찬양을 인도하면서 주일오후예배의 막을 여는 역할을 하였다. 주일 오후 시간 예배의 명칭이 ‘주일밤찬양예배’에서 ‘석양예배’ 혹은 ‘주일석양찬양예배’를 거쳐 ‘주일찬양예배’로 정착하는 것에, 경배와찬양단의 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1999년에는 경배와찬양단의 중·고등부 조직이라 할 수 있는 ‘가브리엘 찬양단’도 교회 조직에 등재되었다.

‘국악찬양대’의 조직과 활동도 있었다. 1997년 교회 수첩에 처음 등장하는데, 3월 2일과 4월 20일 그리고 6월 15일에 주일오후예배를 ‘우리 가락 찬송으로 드리는 예배’로 이끌었다. 1999년 매월 셋째 주일 오후의 주일찬양예배 시간에 있었던 ‘우리 가락 찬송 배우기’ 시간 역시 국악찬양대에서 담당하였다. 이는 예배의 토착화(土着化, Indigenization)에 지속적인 관심을 쏟았던 안창엽 목사의 예배신학과 맞물린 결과물이기도 했다.

■ 찬양 조직의 연도별 현황

• 1991년

성가대장 : 안송엽, 총무 : 김영선, 지휘 : 송성희, 반주 : 안선미

• 1992년

성가대장 : 이희성, 총무 : 김경식, 지휘 : 송성희, 반주 : 안선미 김혜영

• 1993년

성가대장 : 이희성, 총무 : 임채철, 지휘 : 송성희, 반주 : 안선미 김혜영

어머니성가대

• 1994년

성가대장 : 이희성, 총무 : 이한규, 지휘 : 송성희, 반주 : 안선미

어머니성가대

• 1995년

성가대장 : 김영선, 총무 : 이한규, 지휘 : 송성희

피아노 : 임미정, 오르간 : 이미성, 관현악부 : 안선미 양옥경 이현경 유은나

어머니성가대

• 1996년

성가대장 : 김영선

1부 - 지휘 : 이진산, 반주 : 양혜진,

2부 - 총무 : 김구태, 지휘 : 송성희, 반주 : 황정아

어머니성가대

• 1997년

성가대장 : 이희성

1부 - 지휘 : 이진산, 반주 : 김효정

2부 - 총무 : 최규익, 지휘 : 송성희, 반주 : 황정아

어머니성가대, 경배와찬양단, 국악찬양대

• 1998년

1부 - 대장 : 진교헌, 총무 : 안종복, 지휘 : 이진산, 반주 : 김효정

2부 - 대장 : 이희성, 총무 : 정국양, 지휘 : 송성희, 반주 : 황정아

어머니성가대, 경배와찬양단(단장 김구태, 총무 양혜영), 국악찬양대

• 1999년

1부 - 대장 : 진교헌, 총무 : 안종복, 지휘 : 이진산, 반주 : 김효정

2부 - 대장 : 정인기, 총무 : 정국양, 지휘 : 송성희, 반주 : 황정아

어머니성가대, 경배와찬양단, 국악찬양대

2. 절기와 행사

1) 사순절~부활절

1990년대 들어서면서 부활주일, 창립기념주일, 추수감사절, 성탄절, 송구영신 등 절기상의 기동들이 보다 강화되었다. 부활주일에는 전주시기독교연합회 주관의 연합새벽예배 참석, 성가대의 칸타타, 오후 예배시간의 축하 행사로 진행되는 틀이 거의 자리잡혔다. 오후 축하 행사의 경우, 1992년에는 각 기관이 참여하는 축하찬양 예배, 1994년에는 기관별 복음성가경연대회, 1995년 복음성가 잔치, 1999년 연합성



부활절 행사(1992년)

가대 헌신예배 등이 확인된다. 1992년과 1999년에는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를 가졌고, 1999년에는 성금요일예배도 드렸다. 부활주일의 절기적 중요성이 고난주간까지로 확장되고 있는 모습이다.

2) 창립기념주일

창립기념주일도 중요한 절기로 굳게 세워졌다. 창립 10주년이었던 1991년에는 총동원 주일로 지키고 오후에는 유치부에서 장년부까지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찬양예배로 드렸다. 1992~1994년에는 생일잔치 식사와 각 기관이 참여하는 찬양축하예배가 이어졌다. 1995년에는 찬양 사역자 김석균 집사 초청 찬양 간증 집회가 있었다.



창립기념주일 친구 모습(1992년)

목·회·서·신

창립 10주년의 강림교회

1981년 7월 3일, 5명이 모여 예배드림으로 시작한 우리 강림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복주신 속에서 엄청난 성장을 해 왔습니다. 유치부까지 합쳐서 우리 교회 성도가 약 800여명에 이르기 때문에 150배 이상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교회 직원은 목사 1인, 전도사 3, 장로 6, 안수집사 7, 권사 7, 서기집사 131명이며, 교회학교는 유치부,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로 되어 있고, 구역은 2개의 구역, 그리고 자치기구로서 2개의 청년회, 4개의 어전도회, 2개의 남선교회가 활발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이웃을 그리스도에게로 모두 인도하는 일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려는 사명입니다. 둘째는 우리 이웃이 당하는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셋째는 점점 정예화되어 가는 농촌 교회를 돕는 일입니다. 잘못된 정체를 우리 트라이랜드 속에서 고질적인 농촌교회에 관심을 쏟는 것입니다. 이 일을 "지역선교위원회"와 "농촌선교위원회"를 우리교회는 "지역선교위원회"와 "농촌선교위원회"를 조직하고 전교인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10년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인도하심 속에서 기적적인 성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창립해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또한 알았습니다. 이제 는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열심으로 예배드림 속에서 생명의 있는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우리의 몸도,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다 드려 하나님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 역사 앞에서, 우리 민족 앞에서, 한국교회 앞에서, 도 부끄러움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존중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그분의 지체로서 살아갈 때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창립10주년 목회서신(1991년 7월 7일 주보)

이후로도 창립기념주일에는 각 기관이 찬양을 준비하고 함께 모여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잔치가 자리매김되었다. 주보의 목회서신 코너를 통해 교회의 역사를 되새기고, 현재 교회의 현황과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짚어준 것도 창립기념주일 때마다 행해진 중요한 일이었다. 1991년에는 ‘이웃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 ‘이웃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일’, ‘농촌교회를 돕는 일’을 전주강림교회의 3대 사명으로 주지하였다. 1992년부터는 ‘선교와 사랑의 현장’을 향한 발걸음을 계속해서 강조하였는데, 15주년이 되는 1996년부터는 ‘지역사랑위원회’와 ‘농촌선교위원회’의 활동을 보다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3) 추수감사절

추수감사 절기로 맥추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이 계속해서 유지되었다. 맥추감사 절은 1995년까지는 7월 넷째 주일에 지키다가, 1996년부터는 6월 넷째 주일로 변경 하였다. 추수감사절은 계속해서 10월 마지막 주일에 지키다가 1998년에 추석 지난 후 두번째 주일인 10월 18일에 추수감사절을 지킴으로써, 추수감사절을 추석 명절 과 결합하기 시작하였다. 1996년 8월 4일 당회에서 추수감사절을 ‘추석 명절 후’ 로 옮기기로 하였으나, 1998년에서야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었다. 1999년에는 추석 다음 주일인 9월 26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었다. 1991년 교회학교 특별찬양, 1992년 축하 행사, 1994년 2남선교회 주관의 가족 찬양의 시간, 1997년 2남 가족찬양대회 등이 진 행되었고, 1999년에는 국악찬송 예배를 드렸다. 한편 1993년부터는 종교개혁주일이 교회 절기에 표기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97년까지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추수 감사주일로 지키면서 종교개혁주일이 묻힌 감이 있고 교회 절기로서의 뚜렷한 의미 부여가 되지는 못하였다. 어린이주일, 아버지주일, 청년주일과 같은 가정 절기들도



추수감사절(1993년)

정례화되었다. 1996년 추석 때부터는 추석과 설 명절의 가정예배를 위한 지침과 모범예식도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4) 대림절~성탄절

성탄절 역시 부활주일과 마찬가지로의 강화가 이루어졌다. 12월 24일 교회학교의 성탄축하 행사, 12월 25일의 성탄절 새벽 촛불예배, 성탄절 아침 전교인이 함께하는 성탄축하예배가 견고하게 자리잡았다. 여기에 1991~1992년에는 전주시기독교연합회의 성탄축하찬양예배 참석이 있었고, 1994년 성탄절 오후에는 장년부 각 기관이 준비한 성탄축하 행사가 있었다. 1996년에는 성탄축하 행사에 선교원이 참여하였고, 1997년부터는 과란하늘어린이집이 주관하는 성탄 축하 행사가 별도로 진행되었다. 1996년 대림절 마지막 주간 특별새벽기도회를 실시하는 등 성탄절기의 정신이 대림절까지 넓혀지는 양상도 나타났다. 송구영신예배 역시 확고하게 자리 잡고 매년 이어졌다.



성탄절 모습(1992년)

5) 기타 행사들

교우들 간의 친목을 강화하는 행사로 야외예배와 체육대회, 찬양대회, 성경퀴즈대회 등이 있었다. 전교인 야외예배는 1991년 5월 12일, 1992년 5월 10일, 1994년 5월 8일에 있었다. 체육대회는 1994년 5월 27일 오후 1청년회 주최로 동북초등학교에서 있었고, 1997년 10월 3일에도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었다. 찬양대회로는 1991년 5월 26일 2남선교회 주최의 가족찬양대회, 1992년 6월 21일 2남선교회 주최 제3회 가족찬양대회, 1994년 4월 3일 부활절 기관별 복음성가경연대회와 10월 3일 2남선교회 주관의 추수감사절 가족찬양대회, 1996년 5월 19일 복음성가대회, 1997년 5월 18일 청년회 주최 복음성가대회, 10월 26일 추수감사주일 2남선교회 주최 가족찬양대회 등의 기록이 남아있다. 1994년 11월 20일과 1995년 11월 26일 3남선교회 주최의 성경퀴즈대회도 기록으로 남아있다.

1993년 5월 23일 6인의 안수집사와 3인의 권사를 세운 3차 임직예식, 1993년 10월 10일의 교육관 입당, 1995년 4월 29일 예배당을 헌당하면서 4인의 장로와 10인의 안수집사 그리고 15인의 권사를 세운 4차 임직예식 등이 이 시기의 중요한 교회 행사였다. 그 외에도 '선교와 사랑의 현장' 운동과 관련한 여러 행사가 있었다. 1993년 4월 13~15일 전북노회 120회 정기노회가 본교회당에서 열렸다. 이 시기의 마지막 중요한 교회행사는 1999년 11월 27일 전북노회장으로 임수된 고 안창엽 목사 장례예식이었다.

3. 선교

1) 복음 전도 선교

교회성장에 대한 강조가 다소 둔화되고 ‘선교와 사랑의 현장’ 운동의 전개에 따라 농촌 선교, 지역사회 선교, 해외 선교 등으로 중심축이 이동하기는 했지만, 전도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와 열의는 식지 않고 이어졌다. 수요성서학교, 주보, 교회수첩 등을 통해 전도교육이 지속되었다. 총동원 주일, 부흥회, 간증집회 등 전도 지향 행사들도 계속되었다. 1991년에는 7월 7일 교회창립 10주년을 총동원 주일로 지켰고, 1995년 11월 26일은 전교인 함께 예배드리기 주일이었다. 부흥회는 1992년 10월 19~24일(강사: 장향희 목사), 1995년 2월 13~16일(강사: 이성의 목사, 뉴욕 은성교회), 1996년 1월 14~17일(강사: 박용규 목사) 등이 있었다. 1996년 2월 11일에는 수요성서학교 시간에 김철수 목사를 초청하여 하루 전도학교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간증집회로는 1994년 4월 15일 ‘낮은 데로 임하소서’ 주인공 안요한 목사, 1994년 6월 12일 가수 출신 장욱조 집사, 1995년 7월 2일 찬양사역자 김석균 집사, 1999년 6월 20일 박영근·박현자 부부 등이 강사로 초청되었다.

2) 지역교회협력 선교: 농촌 선교

1986년 2월 20일 장수군 천천면 신기교회(신정의 전도사)에 대한 지원을 시작으로 태동한 농촌교회와의 협력 선교는 1986년 12월 20일 순창군 유등면 반석교회, 1988년 남원 운봉면 매요교회, 1989년 진안 물곡교회, 1990년 진안 성운교회와 완주군 피목교회로 점점 확장되고 있었다. 여기에 ‘선교와 사랑의 현장’ 갖기 운동이 1991년부터의 목회 방향으로 설정되고 1991년 2월 10일 ‘농촌선교위원회’가 조직되

면서 급속히 발전하였다. 처음의 농촌선교위원회는 당회 직속의 특별위원회로 조직되었지만, 그 성격은 자원자들로 구성되는 일종의 ‘신앙 선교회’ 조직과 비슷하였다(첫 구성원 : 김영선 김정은 박정순 신은순 안길권 양병재 오광섭 이강민 이선옥 이연우 이정석 진교현 황경주). 1995년부터는 교회 수첩에 조직 현황과 임무 매뉴얼이 기재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각 자치기관 안에 선교부, 지역사랑부, 농촌선교부, 경조부를 설치하도록 한 1994년 11월 6일 당회의 결의에 따라 1995년부터는 각 자치기구들에 농촌선교부가 설치되고 그 부장이 당연직 농촌선교위원이 됨으로써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었다.

1994년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어려운 교회에”를 슬로건으로 정하였고, 1995년에는 ‘농촌선교위원회 회칙’을 제정하면서 목회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교회는 지원금을 감액하도록 하였다. 자매결연 교회의 수는 1991년 12개 교회, 1992년 14개



농촌선교위원회 게시판

교회, 1993년 18개 교회, 1994년 21개 교회, 1995년 24개 교회, 1997년 23개 교회, 1998년 24개 교회, 1999년 24개 교회였다. 농촌선교위원회의 재정 상황은 1995년에 처음 확인된다. 1995년의 경우를 보면, 교회 지원금 1,920만 원, 기관 보조금 516만 원(남선교회 각 60만 원, 여선교회 각 48~60만 원, 교회학교 및 청년회 각 12만 원), 선교현금 417만 6천 원으로 마련된 재정으로 24개 교회의 교역자 보조, 교역자 부부 초청 세미나 등에 사용하였다. 교회 재정으로부터의 지원금이 1996~1998년에는 1,400만 원이었고 1999년에는 1,500만 원이었다. 농촌 선교현금은 1999년에 838만 원이었다.

사업의 방향은 크게 세 갈래였다. 첫째는 농촌 인구의 도시 이주가 증가하면서 어려워져 가는 농촌교회 목회자의 생활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교회의 예산을 세울 뿐만 아니라 ‘농촌 선교현금’을 현금 항목으로 두어 자원하는 성도들이 월회비 개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1996년을 기준으로 볼 때 교회 보조금 1,400만 원, 선교현금 756만 5천 원, 각 기관 보조금 624만 원



농촌교회 방문 활동(1992년, 완주 피목교회)



농촌목회자 초청 세미나(1992년)

등 총 29,431,543원의 재정으로 농촌교회와의 협력 사업을 전개하였다.

둘째는, 전주강림교회 교우들이 자매결연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며 필요한 봉사 활동도 하는 인적 교류 협력 사업이다. 교회학교 각 부서와 자치 기관들을 자매결연교회와 연결 지어 이 활동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온 교회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동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교회학교 각 부서와 자치 기관들이 해마다 자매결연교회를 방문하며 교류하였다. 1991년부터 교회 수첩에 자매결연 교회 목록과 주소, 연락처를 수록하였고, 자매결연 교회의 주요 소식들을 주보 광고를 통해 알리기도 하였다.

셋째는, 자매결연교회 목회자 부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이었다. 이는 자매결연교회 목회자들이 전주강림교회를 방문함으로써 양방향의 교류가 이루어지게 하는 일이었다. 또한 농촌교회 목회자들에게 자기계발의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협력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었다. 1992년 8월 14일을 시작으로 1994년 8월 12일(강사: 총회 농어촌부 총무 박노원 목사)과 11월 17일,

1995년 2월 9일과 6월 8일 그리고 8월 22일, 1996년 8월 22일, 1997년 8월 11일의 행사가 기록으로 확인된다.

그 밖에도 농촌 선교 관련 활동들이 있었다. 특히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체결 전후로 이와 관련한 활동들이 많았다. 일례로 1994년 1월 30일에는 총회의 농어촌살리기 운동을 소개하면서 농어촌살리기 기도주일로 지켰다. 2월 6일에는 자매결연 교회인 임실제일교회 심상봉 목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우루과이 라운드와 농촌교회” 특강을 농촌선교위원회가 개최하였다. 1995년 7월 10~15일에는 청년회가 화산면 운곡리 석천마을에서 봉사 활동을 벌였고, 청년문화제를 통해 농촌의 어려움을 알리고 직거래 장터를 여는 등의 활동들이 이어졌다.

■ 연도별 자매결연 교회 현황(괄호 안의 이름은 담임 교역자)

• 1991년 : 12개 교회

기존 : 남원 매희교회(윤창화), 순창 반석교회(권인수), 완주 피목교회(박완철),

장수 신기교회(신정의), 진안 성운교회(오병암), 진안 물곡교회(구의재)

추가 : 남원 금지교회(최명수), 순창 인계제일교회(조용범), 이리 엘림교회(정종모),

장수 평촌교회(문영학), 진안 와룡교회(고창남), 진안 용담교회(성경환)

• 1992년 : 14개 교회

추가 : 남원 방동교회(장세곤), 부안 청림교회(이성남), 순창 구미교회(하길자)

제외 : 물곡교회(지원 중지 요청 수락). 순창 반석교회(5월까지 지원)

• 1993년 : 18개 교회

추가 : 고창 월산교회(이의수), 남원 갈계서부교회(이상재), 무주 금평교회(채경석),

완주 신촌교회(강병태), 진안 영광교회(이양재)

• 1994년 : 21개 교회

추가 : 완주 대승교회(홍옥현), 임실제일교회(심상봉), 진안 연평교회(강재희)

• 1995년 : 24개 교회

추가 : 무주 진도교회(채경석), 전주나실교회(이희운), 진안 물곡교회,

진안 연평교회(강재희), 무주 오산교회(오병암)

제외 : 진안 성운, 무주 금평교회

• 1996년

목록 확인 안됨

• 1997년 : 23개 교회

추가 : 군산 광원교회(이건희), 영동 조동교회(김진호), 완주 금당교회(이화자)

1996~1997년 제외: 남원 갈계서부교회, 남원 매요교회, 무주 금평교회,
부안 청림교회, 순창 구미교회, 이리 엘림교회, 진안 용담교회,
진안 물곡교회

• 1998년 : 24개 교회

추가 : 완주 승치교회(이혜선), 장수 연평교회(강석분)

제외 : 장수 구락교회

• 1999년 : 23개 교회

목록 확인 안 됨

3) 해외·타문화권 선교

1988년 9월 태국의 펫담교회(1989년까지 지원)와 1990년 1월 뉴질랜드 신중혁 선교사에 대한 선교 후원(1994년 12월까지 지원)에 이어, 1991년 9월 29일 당회는 필리핀 크리스찬 아두안교회(안토니오 오라에 전도사)에 월 100달러씩 1년간 지원하기로 하고 10월부터 지원을 시작하였다(1994년까지 지원). 1993년 10월 3일 당회는 방파선교회를 통하여 볼리비아 브니엘교회에 대해 월 10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하고 10월 22일부터 집행을 시작하였다(브니엘교회 2006년까지 지원, 2007년부터 방파선교회 지원으로 변경). 1995년 1월 29일에는 러시아에 모스크바 제7교회(아르베긴 젤야 전도사)를 개척하고, 이어 9월 10일에는 당회원들의 선교헌금으로 러시아 모즈독지역에 뿌라홀라드니교회



필리핀 크리스천 아두안교회 방문(1991년)

(김젠야 전도사)를 개척하였다. 1997년에는 안창엽 목사가 8월 12~23일 네팔신학교에 가서 예배학과 설교학을 강의하였다. 1999년부터는 네팔신학교 이춘심 선교사에 대한 선교 지원이 시작되었다(2001년까지 지원). 한편, 1999년 10월 24일에는 1990년 1월부터 94년 12월까지 지원했던 뉴질랜드 신종혁 선교사와 그곳 마오리교회 총회장과 신학생 3명이 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하였다. 1999년 3월 기준으로 해외 선교헌금은 월 25만 원 정도였다.

러시아 선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다. 전주강림교회가 해외 선교현장의 교회 개척에 참여한 첫 사례였기 때문이다. 1994년 7월 10일 주보에 창립 13주년 사업으로 러시아 선교에 참여한다는 광고가 나오고, 8월 28일에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9월 4일 주보에 그 결과를 수록하였다. 당시 세 곳이던 해외 선교지 지원에 더하여 모스크바에 교회를 개척하지는 안에 대하여 59.2%의 찬성 의견이 있었고, 이를 토대로 모스크바에 교회를 개척하는 러시아 선교를 시작한다는 내용이었다. 월 50만 원(예배당 전세비 30만 원, 교역자 사례비 20만 원)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 이어 안창엽 목사가 모스크바 장로회 신학대학 예배학 강의차 1994년 9월 16~30일 러시아를 방문하고 돌아와, 10월 한 달 동안 주보에 “모스크바를 다녀와서”, “모스크바 장로회 신학대학”, “러시아에 있는 개신교회의 예배”, “러시아 정교회” 등 러시아 선교와 관련한 내용을 연재하였다.

1994년 11월 6일 당회는 러시아에 개척할 교회를 ‘모스크바 제7교회’로 명명하고, 12월에 다시 모스크바 교회 개척에 대한 글을 주보에 올려 성도들의 관심을 환기하였다. 1995년 1월 안창엽 목사와 김기범 장로가 러시아를 방문하여 1월 29일 모스크바 제7교회(아르베긴 첸야 전도사) 개척예배에 참석하였다. 개척예배에서 안창엽 목사가 ‘예수님을 믿어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김기범 장로가 기도하였다. 안창엽 목사는 귀국 후, 모스크바 제7교회에 100여 명이 출석하고 있으며, 교역자 아르베긴 첸야는 모스크바 국립대학 성악과를 졸업하고 모스크바 장로회 신학대학원 3학년 재학 중이라고 소개하였다.

1995년 6월 4일 당회는 러시아 남부 체첸 지역 모즈독에 한인 교회의 개척을 지원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 지역은 일제 강점기 항일운동을 하다가 일본군에 쫓겨 러시아로 이주했다가 스탈린 정권에 의해 강제이주 당하여 정착한 한인 후예들이 살

고 있는 곳이었다. 이번 교회 개척은 당회원들의 선교 비로 감당기로 하고 새로이 시무장로로 세워진 이대(이정석, 이희성, 진교현, 황경주)과 기존의 시무장로들(김기범, 안송엽, 온호섭, 류시영) 그리고 은퇴장로인 권이철 장로가 함께 참여하였다. 1995년 8월 30일~9월 15일 안창엽 목사가 모스크바 장로회 신



러시아 뿌라흘라드니교회 개척(1995년)

학대학 강의차 러시아를 방문하여, 9월 10일 뿌라흘라드니교회(김젠야 전도사) 개척예배를 드리고 돌아왔다. 한편 1996년 1월 7일 뿌라흘라드니교회 돕기 헌금을 실시하여 217만 8,662원을 모금하면서 교인들도 함께 참여하였다. 1996년 7월 14일에는 모스크바 제7교회 아르베긴 전도사와 뿌라흘라드니교회 김젠야 전도사를 포함한 모스크바 신학대학 학생들이 방문하여 주일예배에서 특송하였고, 두 전도사는 8월 초에 약 열흘간 전주에 머무르며 8월 4일 주일밤찬양예배에서 아르베긴, 젠야 전도사가 특송을 하기도 하였다. 1999년부터는 뿌라흘라드니교회에 대한 당회원의 선교비를 교회에서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 연도별 현황

- 1989년 : 태국 팻담교회
- 1990~1991년 : 뉴질랜드 신중혁 선교사
- 1992~1993년 : 뉴질랜드 신중혁 선교사, 필리핀 아두안교회
- 1994년 : 뉴질랜드 신중혁 선교사, 필리핀 아두안교회, 볼리비아 브니엘교회
- 1995~1998년 : 볼리비아 브니엘교회, 러시아 모스크바 제7교회, 러시아 뿌라흘라드니교회
- 1999년 : 볼리비아 브니엘교회, 러시아 모스크바 제7교회, 러시아 뿌라흘라드니교회, 네팔신학교 이춘심 선교사

4) 지역사회 봉사 선교

(1) 지역사회 사랑위원회 활동의 시작

지역사회 봉사 선교 활동은 지역사회 사랑위원회의 조직을 통해 체계화되고 확장되었다. 지역사회 사랑위원회는 1991년 2월 10일 농촌선교위원회와 함께 ‘지역선교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조직되었다. ‘선교와 사랑의 현장’ 운동을 주도할 양대 조직 중

하나였다. 지역사랑헌금으로 지역사랑 활동에 동참하기 원하는 이들로 구성된 자원 조직의 형태였다. 위원회의 명칭은 1993년 ‘지역사랑위원회’로 바뀌었다.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선행된 면밀한 준비 과정이 눈길을 끈다.

먼저,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가짐으로써 지역사랑 활동의 이론적 토대를 정립하는 일로 시작하였다. 1993년 2월 7일에 차기천 목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교회와 지역사랑”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1993년 3월 14일에 한일장신대학교 구종희 교수를 강사로 초빙하여 “사회 속의 교회의 역할과 현실”에 관한 세미나를 가졌다. 두 번째 단계로, 앞서서 지역사랑 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교회들의 사례를 탐방하였다. 이를 위해 1993년 3월 13일 서울의 도림교회와 덕수교회를 관계자 34명이 직접 방문하여 활동 현장을 견학하고, 운영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다. 세 번째 단계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듣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1993년 4월 26일 반상회 날을 이용하여 금암2동 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동장과 동 직원 5명, 통장 24명, 노인회장, 새마을회장과 의 간담회를 가지면서 협력을 약속 받았다.

네 번째 단계는 지역사회의 필요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1993년 9월 5일, 이 일을 담당할 전문가로 조혜숙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여 1993년과 1994년 초까지 지역 사회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사회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과 교회 내의 자원을 파악하는 것이 목표였다. 지역조사의 내용은 지역의 자연환경, 인구 거주지 사회구조 조사, 향토문화와 전통에 관한 산업경제생활 조사, 주민들의 생활과 의식 조사, 사회단체 공공시설과 행정구조 조사 등이었다. 그리고 자원조사는 인적자원, 시설과 공간자원, 재정자원, 물질자원, 조직자원 조사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지역조사 대상은 금암 1·2동과 인후2동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방법은 설문조사, 면접, 주민 간담회 및 행정기관 의뢰 등을 활용하였다. 교회 내의 자원조사는 전체 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심방교역자 의뢰 및 행정기관 의뢰를 활용하였다. ‘미션 리서치’라는 기관에 의뢰하였던 설문조사 결과는 1994년 3월 6일 주보를 통해 공개되었다.

당회 직속의 특별위원회로 배치된 지역사랑위원회는 1995년부터 교회 수첩에 그 조직과 임무 매뉴얼이 수록되었는데, ‘지역 발전에 참여’, ‘노인대학 운영’, ‘불우이웃 돕기’가 그 목적으로 설정되었다. 1996년의 예를 보면, 지역사랑위원회의 연간 수입은 교회 보조금 500만 원, 선교현금 642만 3천 원 등 총 14,829,694원이었다. 이 금액은 운영 및 구제비 지출에 4,921,820원, 경로잔치 비용으로 3,539,770원, 장학 사업에 612만 원 등으로 사용되었다. 1999년의 경우 교회 지원금 55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5,757,088원의 재정 집행 규모를 나타냈다. 극빈자 보호, 불우이웃 돕기, 장학 지원, 경로잔치 등이 주요 지출처였고, 그 외에도 위로 방문, 김장 지원, 한글학교, 세미나, 행려자 구제, 사회복지 기관 지원 등에 사용되었다. 주요 활동 분야를 노인 사업, 어린이·청소년 사업, 긴급지원 사업, 의료선교로 구분하여 정리해 볼 수 있다.

(2) 노인 사업: 경로잔치, 노인대학, 한글학교

지역선교위원회는 1992년 3월 28일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들을 초대하여 경로잔치를 열었다. 이때 참석한 노인은 200여 명이었으며 지역주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듬해인 1993년에는 노인초청 잔치를 금암2동과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하여(1993년 5월 2일 당회) 1993년 5월 15일 300명이 참석하는 ‘금암2동과 함께하는 제1회 금암지역 노인초청경로잔치’를 개최하였다. 이는 이후 2006년 14회까지 이어지는 행사가 되었다. 1994년까지는 교회 마당이 협소하여 금암2동 놀이터에서 열다가, 교회 대지가 확보된 후 제3회(1995년)부터는 교회 마당에서 진행하였다. 지역의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에 효과적인 기여를 창출해낸 모델이었다. 1994년 11월 21일에는 엑스포 과학공원으로 경로관광을 가기도 하였다.

‘강림교회 노인학교’(현재 ‘강림경로선교대학’)는 1993년 6월 5일 85명의 입학생들과 함께 개교하였다. 현대의 핵가족 생활 속에서 소외당하기 쉬운 노인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고 교양 강좌와 여가 선용, 사회 교육, 기타 친교 활동 등을 통하여 보람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초대 교장은 안창엽 목사, 교감은 황경주 장로였다. 1994년에는 학교의 명칭을 ‘전주강림교회 노인대학’으



금암2동과 함께하는 경로잔치(1993년)

로 개명하고 황경주 장로가 학장을 맡았다. 2년제 학제의 처음 학생 87명이 1995년 12월 16일 졸업식을 한 후, 1996년도부터는 매년 계속 교육으로 학제를 변경하였다. 1년 회비 1만원, 모임 시간은 토요일 오전이었다. 연도별 입학생 수는 1993년 85명, 1994년 110명, 1995년 140명, 1996년 150명, 1997년 170명, 1998년 190명, 1999년 190명이었다. 이 시기의 노인학교 학장은 1993~1994년 황경주 장로, 1995~1996년 정인기 장로, 1997년 김기범 장로, 1998년 황경주 장로, 1999년 김기범 장로였다. 재정 규모는 1996년의 예로, 교회 보조금 700만 원, 학생 등록금 141만 원 등 총 9,343,178원으로 강사비, 식사비, 간식비, 교육관리비, 수학여행 등에 사용하였다.

1996년 9월 9일, 지역사랑위원회에서 한일신학대학교와 전북사회선교협의회 의 후원으로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한글학교’를 시작하였다. 경비, 교재, 강사는 한일신학대학교와 전북사회선교협의회에서 제공하고 본 교회 지역사랑위원회가 주관 하는 협력 프로그램이었다. 한글학교는 매주 토요일 노인학교가 운영되는 날 오후



노인학교 개교(1993년)



노인학교 현판식(1993년)



한글학교 개교(1996년)

1시부터 3시까지 운영되었으며, 학생 수가 개교 당시에는 45명이었다. 반 편성은 민음반, 소망반, 사랑반, 성실반, 초급반으로 편성하였으며, 학장은 김기범 장로가 맡았고, 행정은 한일신학대학교에서 파송한 김요한 선생이 담당하였다. 지도 교사로는 김계순, 김세순, 김재순, 김정희, 김주옥, 김현아, 박미애, 배인순, 양은순, 이순이, 이점덕, 이종인, 한정란이었다. 학생 수가 감소하여 2001년 11월 18일에 종강하고 6년 동안 운영했던 ‘한글학교’를 폐교하였다.

(3) 긴급구호, 의료 선교, 장학 선교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긴급 도움을 제공하는 일도 진행되었다. 1991년 수재를 당한 이들을 위해 총회를 통해 20만 원의 수재의연금을 보냈고, 1992년 5월에는 L.A 폭동 사건으로 재난을 당한 이들을 위해 30만 원의 의연금을 보냈다. 1992년 2월 25일에는 신문배달원과 환경미화원을 초대하여 식사와 선물을 나누는 사랑 나눔이 있었다. 교인 중 4명의 극빈자에게 매월 생계비를 보조하고, 동사무소가 추천한 극빈 가정 3가정에게 매월 생계비를 지원하였다. 10명의 불우 노인에게 요구르트를 매일 배달하였고 3곳의 경로당에 전복일보를 배달하도록 지원하였다. 1993년 6월 26일에는 금암2동장이 추천한 13명의 불우아동을 초청하여 다과회를 가지며 격려와 상담 그리고 기념품과 격려금을 전달하였다. 1996년과 1997년에는 기아 속에 있는 북한동포 돕기 헌금을 실시하여 각 124만 6천 원과 277만 4천 원을 모금하여 보내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1997년 청년들은 북한 동포들을 돕기 위해 청년문화제를 통해 헌옷, 신발, 생활용품, 폐지 등을 모으기도 하였다.

의료 선교 활동은 1996년 간호사 출신이었던 서경자 전도사를 중심으로 한 재가복지 및 목회 간호 활동에서 시작되었다. 1996년 1월 새가족으로 등록한 중풍 환자 노종금 씨(남, 당시 80세)를 시작으로 조향자 집사 등 4~5명의 환자 가정을 매주 방문하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며 위로하면서 의료재가복지 활동을 전개하였다. 1997년부터는 금암 2동 사무소 김병님 사회복지사의 협조를 받아 대상을 넓혀 9가정을 섬기게 되었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였다(박정순 신은순 오봉애 이진화 조귀자 최복

순). 활동 방식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기, 말벗 되기, 청소, 식사 도우미, 병원 동행, 머리 손질, 목욕 봉사, 운동 돕기, 손발톱 다듬기, 전문 기관과의 연결 등이었다.

1998년에는 온호섭 장로가 자문 의사로 참여하고, 자원봉사자가 증가하였으며(임남이, 정명숙), 5여선교회의 지원으로 삼천동 ‘사랑과 평화의 집’ 방문 봉사 활동도 시작했다. 매주 토요일 새벽기도회 후에는 혈압, 당뇨, 체중 측정 등 건강체크 봉사를 실시하였다. 1999년에는 목회간호재가 활동의 총무로 박정순 권사를 선임하고, 돌보는 가정이 13가정으로 증가하였으며, 봉사자들도 추가되었다(강묘자, 김영례, 박인희, 박광수, 성기봉). 의료 선교 활동의 시작에 발맞추어 암환자를 위한 선교헌금이 시작되었고, 1997년부터 예수병원 암환자 후원회에 선교비를 지원하였다. 1999년 2월 10일 당회는 암환자 선교헌금에 대해, 지역사랑위원회 산하에 두고 최복순 집사로 하여금 회계를 담당케 하며, 예수병원 입원 암환자와 본 교회 암환자를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장학사업은 1990년대 초 결손가정과 모자세대의 고교생 남자 1명 여자 2명에게 장학금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공납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장학금 지원은 해마다 지역사랑위원회의 지출 항목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1993년에는 교육관 입당 직후인 10월 13일 청소년 무료공부방을 개설하였다.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 최적의 학습 분위기를 제공하여 학습의욕을 고취하고 애정 어린 생활지도를 통하여 기독교적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평일은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운영하고 토요일은 오후 3시부터 11시까지 운영하였다. 공간은 2개 교실에 좌석 수는 남자 40석, 여자 40석으로 모두 80석이었다. 공부방 관리는 지역사랑위원장인 김기범 장로가 관장하고 담당교사를 배치하였다. 1993년 말까지는 왕상위 선생이 담당하였고, 1994년 1월 1일부터는 국종영 선생이 담당하여 운영하였다. 1994년 10월 2일에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폐하였다.

(4) 파란하늘어린이집

이 시기에 파란하늘어린이집이 시작되었다. 1995년 12월 13일 당회는 1996년

목회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사랑위원회 산하에 선교원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어 12월 13일 당회에서는 원지현 선생(현재 권사)이 운영하는 ‘파란하늘 유아교육기관’을 교회로 이전하여, 담임목사를 원장으로 하고 원지현 선생을 원감으로 하는 ‘선교원’을 만들기로 결의한다. 기존의 ‘파란하늘’은 원지현 선생이 1994년 3월에 시작하여 40여명의 원아들을 교육하고 있었다. 선교원을 위한 공간은 본당 1층의 유치부실, 유년부실, 성가대실, 여전도회실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1995년 12월 17일부터 교회 주보에 선교원 개원과 원아 모집(3~5세) 광고를 내기 시작하였다. 1996년 2월 교회로 이전한 후 ‘파란하늘’은 졸업생 10명을 배출하였다. 1996년 3월 11일 개원 예배를 드림으로 전주강림교회 부설기관으로서의 ‘파란하늘선교원’이 시작되었다. 첫해인 1996년도 선교원의 총운영비는 60,108,240원이었는데, 교회는 그 가운데 1,500만원을 지원하였다. 지원금으로는 어린이집 인가 설치를 위한 난방 배관 공사와 위생 배관 공사에 사용하였다.

선교원 개원 직후부터 어린이집으로 인가받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교회 건물 1층을 영유아보육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노유자시설로 변경하며 요건을 갖추어



파란하늘어린이집 활동 모습

가는 가운데, 1996년 10월 13일 당회에 어린이집 설립 승인을 받았음이 보고되었다.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야외 놀이터를 만들고 성가대실을 온돌방으로 개조키로 하였다. 1996년 12월 20일 당회는 어린이집을 지역사회위원회로부터 분리 독립시키고 당회의 감독을 받도록 위치를 조정하였다. 1997년 5월 4일 당회에서 강림교회 부설 파란하늘어린이집(원장 원지현, 총무 안진희)의 운영안을 심의하여 채택하였다. 1997년 5월 13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4항에 따라 ‘파란하늘어린이집’으로 정식 인가를 받고, 운영위원으로 조진영 집사, 전재형 집사, 이명숙 권사, 안창업 목사, 오희섭 장로, 황경주 장로를 선임하였다. 1997년 2월 ‘파란하늘선교원’ 졸업생 10명을 배출하고, 1998년 2월 ‘강림교회 부설 파란하늘어린이집’ 졸업생 20명을 배출하였다. 1999년 교회 수첩에 실린 소개글에 따르면, 파란하늘어린이집은 아동중심 교육 과정에 기초한 프로젝트 활동, 활동중심의 통합교육, 성경동화와 예배를 통한 신앙 교육을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를 사랑하는 어린이,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어린이’를 원훈으로 유아교육을 전공한 원장과 교사들이 만 1세~만 5세의 어린이 79명(종일반과 반나절반)을 돌보았다.



파란하늘어린이집 1회 졸업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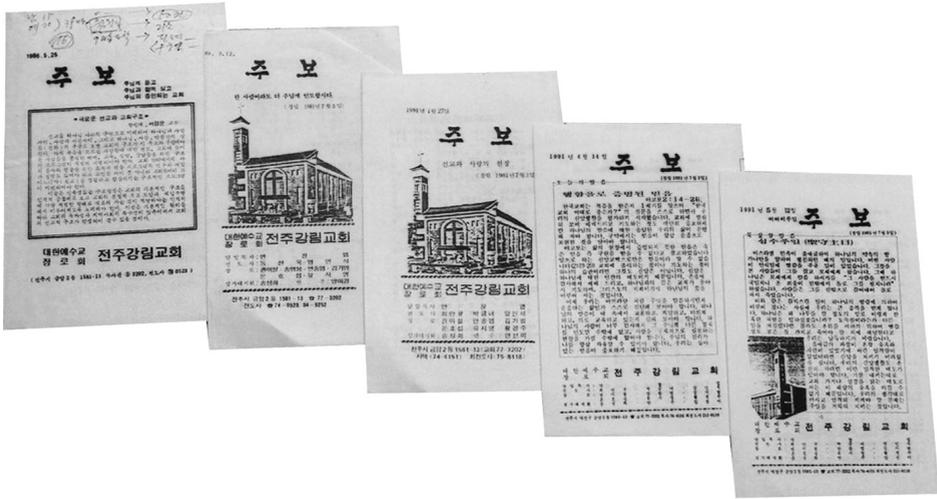
4. 목회

1) 목회 상황 개관

이 시기 내내 교회의 실천 표어는 ‘선교와 사랑의 현장’이었다. 이 슬로건 아래 농촌, 해외, 지역사회 등에서 선교와 사랑의 현장을 찾고, 선교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점점 그 지평을 확장하였다. 이러한 선교와 사랑의 현장을 향한 발걸음으로 인해, 교회의 조직과 재정 구조에 변화가 생기고 교회의 삶 역시 새로운 색깔을 입게 되었다. 농촌선교위원회, 지역사랑위원회, 전주강림교회 노인대학, 파란하늘어린이집과 같은 새로운 기구들이 생겨났고, 각 자치기관마다 농촌선교부, 지역사랑부와 같은 조직들이 생겨났다. 농촌선교헌금, 지역사랑헌금, 해외 선교헌금, 암선교헌금 등 선교 참여형 헌금 항목들이 생겨나고, 재정 구조에도 선교 실천을 위한 항목과 비중이 증가하였다. 교인들은 그 선교의 현장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금으로 참여하고, 농촌 자매결연교회 방문과 여러 가지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선교현장의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선교의 일꾼들이 되었다.

한편, 목회 환경 상의 변화도 몇 가지 확인할 수 있다. 1991년 5월 26일 당회는 6월 1일부터 원거리 출석 성도들을 위해 버스를 운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차량운행은 오래 지속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993년 12월 5일에는 임대영 집사를 교회 관리인으로 채용하여 교회 전반의 환경과 시설 등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주일 점심 식사도 정례화되었다. 교육관 입당 직후인 1993년 10월 17일 주일부터였다. 그전에는 특별한 절기나 행사 때 식사 교제를 함께 나누거나, 매월 첫 주일에만 실시하기도 하였고(1990년 12월 당회), 찬양대원과 교회학교 교사들 그리고 회계 봉사자들을 위한 식사를 시도한 적도 있었다(1992년 1월 5일 당회).

이 시기는 목회적으로 역사에 관한 관심과 의식이 고양된 시기였다. 해마다 창립기념주일의 절기적 위상이 높아져가고, 자료의 수집과 보존이 크게 향상된 것에



교회 주보 표지

서 알 수 있다. 교회 창립 10주년인 1991년부터 교회의 발걸음이 하나의 역사적 전환점을 형성하게 된 것이 교회 전반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일 것이다. 이 시기에는 1998년도를 제외한 모든 연도의 주보가 책으로 제본되어 남겨졌다. 교회 수첩도 빠짐없이 보존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상에도 역사를 남기려는 노력이 깃들여 있다. 당회록, 제직회의록과 같은 회의록뿐만 아니라, 인사 관리 서류, 비품대장, 교회 일지가 작성되었다. 교회학교와 여러 기관도 체계적으로 자료를 작성하고 수집하여 보관하려 노력한 결과물들을 남겼다. 1998년 3월 1일 당회는 20주년에 맞춘 역사 편찬을 위해 사진 및 자료 수집 책임자로 이정석 장로, 동선옥 전도사, 이연우 집사를 선임하였다.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도 적극적이었다. 1996년에는 다가오는 21세기를 바라보면서 “21세기를 맞는 강림교회 만들기”라는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한국교회론”(10월 6일, 김용복 한일장신대 총장), “21세기 교회의 과제와 사회봉사”(10월 13일, 차성환 한일장신대 교수), “21세기 미래사회와 한국교회”(10월 20일, 원도연 집사), “기독교 교

육 면에서”(10월 27일, 송남순 한일장신대 교수), “청년문제”(11월 10일, 황경주 장로) 등을 다루었다. 진행은 발제 후 그룹별 토론을 통해 해당 주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교회의 실천적 과제들을 정립해 나가는 방식이었다. 이를 통해 해당 주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그 내용을 교인들 간에 깊이 공유하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천 과제들을 함께 찾아갈 수 있었다. 세미나의 내용은 『21세기를 대비한 강림교회 비전』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제본하여 남겼다. 이 책에는 그간 수요성서학교에서 다룬 예배, 기도, 은사, 구원의 확신, 청지기, 선교와 사랑의 훈련



21세기를 바라보는 강림교회 비전

등 주제에 관한 학습 자료도 함께 실렸다. 한편, 20주년 행사를 위한 준비도 서둘러 시작하였다. 1999년 8월 1일 당회에서는 창립 20주년 준비위원을 선임하였다(장로대표: 안송엽 은호섭 황경주, 안수집사 대표: 전재형 안길권, 권사 대표: 배인순, 서리집사 대표: 한은숙, 청년 대표: 이감철).

이 시기 안창엽 목사의 발걸음은 매우 바빴다. 농촌교회, 지역사회 등 국내의 선교현장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현장에까지 분주히 찾아다녀야 했기 때문이다. 1994년 9월 16~30일 모스크바 장로회 신학대학 강의차 러시아를 방문하였고 그 연말에는 필리핀 선교지를 방문하였다. 1995년도에는 모스크바 제7교회 개척예배를 위해 러시아를 방문한 데 이어, 뿌라홀라드니교회 개척예배와 모스크바 장로회 신학대학 강의를 겸해 8월 30일~9월 15일 재차 러시아를 방문하였다. 1997년 8월 12~28일에는 네팔신학교 강의를 위해 네팔을 방문하였다. 그 외에도 1997년 10월에는 양인석 목사안수예식 참석을 위한 미국 방문, 1998년 9월 8~12일 중국 연변 선교지 방문, 1998년 10월 12~23일 사경회 인도 차 독일 방문, 1999년 5월 사경회 인도 차 미국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양인석 목사 시무) 방문 등으로 발걸음이 이어졌다.

국내 여러 교회의 사경회도 꾸준히 인도하였고, 1995년에는 전북사회선교협의 회 회장을 맡아 전북지역의 사회 선교를 이끌면서 사회 선교 확산을 위해 월 1회 지역교회를 순회하는 헌신예배의 설교를 담당하였다. CBS 방송 설교 역시 꾸준히 이어졌다. 1998년에는 전주노동선교상담소 이사장을 맡았고, 1998년 9월 27일 장로회 신학대학 이사로 선임되었는데 1999년 11월 15일 이사회 참석이 안창엽 목사의 마지막 업무 수행이 되었다. 한편 배우는 일도 멈추지 않아, 맥코믹 대학 목회학 공부를 계속하여 1993년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98년 7월 11일에는 『알기 쉬운 예배 이야기』(한국장로교출판사, 1998)를 출판하였다. 1996년 3월에는 목회자 컴퓨터 교육에 참석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때의 교육으로 인해 후기의 설교 원고가 컴퓨터로 작성 될 수 있었던 듯하다.

부교역자들의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86년 12월부터 교육을 담당하던 양인석 전도사는 1991년 11월 30일 사임하였다. 1991년 1월 1일 박금녀 전도사가 전임전도사로 부임하여 1993년 11월 30일까지 사역하였다. 1989년 12월 31일 교육전도사로 부임하여 1990년 9월 1일부터 전임전도사로 활동하던 최만규 전도사는 1992년 4월 23일 목사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사역하였다. 최만규 목사는 1993년 12월 5일 완주군 화산면 종리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 1993년 12월 5일 서경자 전도사가 전임전도사로 부임하였다. 서경자 전도사는 1994년 7월부터 1995년까지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2013년 12월 29일 정년퇴임하기까지 시무하며 새가족부와 교구, 목회간호 활동 등을 담당하였다. 1994년 1월 2일에는 온성진 전도사와 동선옥 전도사가 전임전도사로 부임하였다. 온성진 전도사는 1996년 3월 12일 목사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시무하였다. 한편, 교육전도사로는 1992년 10월 1일 이경 전도사가 부임하여 1994년 8월 30일까지 시무하였고, 김주옥 전도사가 1998년 2월 1일 부임하였다.

2) 목양 관리

(1) 구역·교구

1989년 18개까지 늘어났던 구역이 1991년에는 21개, 1992년에는 24개로 증가한 이후 대체로 24개 구역 체제를 유지하였다(1994년과 1997년에는 23개 구역). 1993년부터는 구역들을 6개의 교구로 나누어 편성하였다. 1998년까지는 구역 임원으로 구역장, 인도자, 권찰을 두다가 1999년에는 인도자를 없애고 구역장이 구역예배 인도까지 함께 담당하도록 하였다. 구역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인도자 공부 모임이 매주 화요일에 있었다. 1991년에는 오전 9시 30분~10시 30분이었는데, 1994년에는 오후 3시로 되어있다. 1992년과 1996~1999년에는 구역장 모임이 매월 첫째 주일 지난 화요일에 있었다. 구역예배 참석자가 1991년도의 경우 120명대로 보고되고 있다. 1992년부터는 구역별 윤번으로 수요성서학교 특송을 담당하였고, 1996년부터는 수요성서학교 시간에 구역별로 앉기가 권고되었다. 1993~1996년까지는 셋째 주일 지난 금요일에 남자 성도들의 교구예배가 있었다. 구역예배 참석이 어려웠던 남성 교우들이 월 1회 교구 단위로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 것이다.

■ 구역 조직의 연도별 편성 현황(구역장/권찰/인도자)

• 1991년

1구역: 유계순 이정옥 김현순	2구역: 오순희 최두옥 신은순
3구역: 김순옥 이주옥 신운자	4구역: 김정자 김연희 김혜숙
5구역: 양지순 박희자 조옥미	6구역: 온영순 모운숙 이정숙
7구역: 김희숙 정명숙 박정순	8구역: 이윤례 전선옥 백 봉
9구역: 이해정 이선옥 민현숙	10구역: 이정자 양복순 이영자
11구역: 김옥희 이봉심 김옥자	12구역: 김춘심 송계숙 이금희
13구역: 조귀자 이점덕 이정순	14구역: 양순님 김미숙 정성례
15구역: 신향용 이복례 박영자	16구역: 박찬숙 김재순 염번자

17구역: 김세순 정영옥 김승희
19구역: 이순이 신정자 권순남
21구역: 김의자 김선주 백영란

• 1992년

1구역: 정복순 전선희 김현순
3구역: 이정순 서계순 김순옥
5구역: 양지순 양광희 박희자
7구역: 박정순 정명숙 김희숙
9구역: 민현숙 유숙자 김옥희
11구역: 김옥자 노경미 이혜정
13구역: 조귀자 이점덕 이정순
15구역: 박영자 백용순 이복례
17구역: 김승희 오춘호 허명순
19구역: 이강인 신정자 이순이
21구역: 배영란 김선주 김영애
23구역: 안월매 서혜숙 김영자

• 1993년

11구역: 신은순 백 봉 김현순
13구역: 오순희 최옥주 양지현
21구역: 양광희 황명선 양지순
23구역: 장순향 최수경 이선옥
31구역: 이정순 서계순 김순옥
33구역: 이윤례 오현자 전선옥
41구역: 박복남 이남순 고명순
43구역: 강금순 이점덕 조귀자
51구역: 박영자 백용순 이복례

18구역: 김순희 이인한 배인순
20구역: 이명숙 장정자 최만규

2구역: 오순희 최옥주 신은순
4구역: 김정자 전을자 최만규
6구역: 모윤숙 우옥희 온영순
8구역: 이윤례 오현자 전선옥
10구역: 이정자 김순자 박금녀
12구역: 송계숙 장순향 이선옥
14구역: 양순님 이종순 이계생
16구역: 염번자 고남주 김재순
18구역: 황등자 서덕렬 배인순
20구역: 이상순 박원숙 최만규
22구역: 유계순 양은순 고정희
24구역: 이구일 김미영 신향용

12구역: 유계순 양은순 고정희
14구역: 김정자 전을자 김혜숙
22구역: 이강인 신정자 이순이
24구역: 김연희 유혜숙 온영순
32구역: 박정순 정명숙 김희숙
34구역: 민현숙 유숙자 김옥희
42구역: 김옥자 노경미 이혜정
44구역: 양순님 이종순 김영자
52구역: 염번자 고남주 김재순

53구역: 김승희 오춘호 허명순

61구역: 김순희 서덕렬 황등자

63구역: 백영란 김선주 김영애

•1994년

11구역: 백 봉 하영순 김현순

13구역: 오순희 이점순 양지현

21구역: 이순이 황명선 양지순

23구역: 이선옥 최수경 장순향

31구역: 김순옥 이주옥 서계순

33구역: 이윤례 오현자 박인자

41구역: 박복남 전을자 고명순

43구역: 김옥희 김양임 조귀자

51구역: 이복례 이경자 백용순

53구역: 김정자 정영옥 전순례

61구역: 배인순 서덕렬 황등자

63구역: 김영애 박찬숙 김선주

•1995년

11구역: 백 봉 하영순 동선옥

13구역: 양지현 이점순 최옥주

21구역: 이순이 황명선 양지순

23구역: 이선옥 최수경 장순향

31구역: 김순옥 이주옥 서계순

33구역: 이윤례 염숙경 박인자

41구역: 장선미 배예숙 신정자

43구역: 김옥희 김양님 조귀자

51구역: 이복례 이경자 노윤숙

54구역: 안월매 이영옥 박금녀

62구역: 이상순 박원숙 최만규

64구역: 이구일 이경자 신향용

12구역: 유계순 임재숙 이정옥

14구역: 김정자 김순자 김혜숙

22구역: 이강인 조성순 신정자

24구역: 우옥희 유혜숙 운영순

32구역: 김희숙 박경희 정명숙

34구역: 정규례 유숙자 장귀순

42구역: 이정순 태성옥 강묘자

44구역: 안월매 아난희 양순님

52구역: 김재순 김정희 고남주

62구역: 이명숙 이복철 이상순

64구역: 장정자 이남순 김세순

12구역: 설순자 양은순 이정옥

14구역: 김혜숙 김순자 전선희

22구역: 이강인 조성순 송순금

24구역: 운영순 박금순 우옥희

32구역: 김희숙 오혜영 정명숙

34구역: 정규례 유숙자 장귀순

42구역: 이혜정 태성옥 김옥자

44구역: 양순님 정성임 이난희

52구역: 김재순 김정희 고남주

53구역: 허명순 정영옥 전순례

61구역: 배인순 서덕렬 이봉심

63구역: 박찬숙 김영례 김선주

• 1996년

11구역: 백 봉 김종숙 오봉애

13구역: 양지현 김종숙 한경애

21구역: 양지순 황명선 송순금

23구역: 온영순 박금순 우옥희

31구역: 서계순 이주옥 이정순

33구역: 이효순 이연님 박정순

41구역: 전순례 배예숙 안종복

43구역: 조귀자 이정운 김옥희

51구역: 이구일 이영숙 노윤숙

53구역: 오춘호 최강원 정영옥

61구역: 정귀임 이종순 이봉심

63구역: 김선주 김영례 박찬숙

• 1997년

11구역: 백 봉 박경옥 오봉애

13구역: 오순희 김종숙 한경애

21구역: 양지순 양광희 이순이

23구역: 우옥희 박돌수 김정희

31구역: 전선옥 이주옥 이정순

33구역: 이효순 이연님 박정순

41구역: 전순례 김해자 안종복

43구역: 조귀자 이정운 김옥희

51구역: 박영자 노윤숙 이구일

62구역: 이명숙 이복철 이상순

64구역: 장정자 이남순 김세순

12구역: 설순자 이점덕 양은순

14구역: 김정자 채순자 전선희

22구역: 이선옥 이복희 강춘자

24구역: 백용순 하영순 김세영

32구역: 정명숙 박경희 박혜영

34구역: 장귀순 신정애 서경자

42구역: 이혜정 옥인정 김옥자

44구역: 양순님 정성임 이난희

52구역: 고남주 유말래 조성순

54구역: 최영애 박재순 이명숙

62구역: 신향용 박미애 최옥주

64구역: 김세순 서예경 장정자

12구역: 유계순 이점덕 양은순

14구역: 김정자 황정희 김혜숙

22구역: 이정숙 이복희 이혜정

24구역: 성영자 정성례 김세영

32구역: 김차남 박경희 박혜영

34구역: 장귀순 신정애 서경자

42구역: 이정순 옥인정 김옥자

44구역: 이난희 이창실 이현자

52구역: 유말래 서안식 김재순

53구역: 오춘호 최강원 정영옥
61구역: 정귀임 이종순 서덕렬
63구역: 김선주 심현식 백영란

54구역: 이명숙 김현경 허명순
62구역: 김세순 서예경 박미애

• 1998년

11구역: 오봉애 박경옥 백 봉
13구역: 유귀민 김종숙 한경애
21구역: 양지순 양광희 이순이
23구역: 우옥희 양민숙 박금순
31구역: 전선옥 이주옥 이정순
33구역: 이윤례 임태숙 박정순
41구역: 안중복 한정란 전순례
43구역: 강금순 양청자 조귀자
51구역: 배인순 노윤숙 이구일
53구역: 정영옥 황은미 오춘호
61구역: 이종순 경순이 서덕렬
63구역: 이강인 유말래 백영란

12구역: 유계순 김연숙 이점덕
14구역: 김혜숙 황정희 송춘영
22구역: 이정숙 김옥주 김경숙
24구역: 유재순 정성례 성영자
32구역: 김차남 서정자 서영례
34구역: 서경자 박복례 정귀례
42구역: 강묘자 옥인정 송순금
44구역: 이난희 이창실 이현자
52구역: 고남주 황상순 김재순
54구역: 정명숙 김현경 허명순
62구역: 이남순 김정숙 박미애
64구역: 김영례 김영님 김영애

• 1999년(구역장/권찰)

11구역: 백 봉 한인숙
13구역: 유귀민 김종숙
21구역: 이순이 이정자
23구역: 황상순 박금순
31구역: 이정순 전선옥
33구역: 이윤례 임태숙
41구역: 전순례 최순덕
43구역: 조귀자 이정운
51구역: 안중복 박숙자

12구역: 이정옥 양은순
14구역: 김재순 송춘영
22구역: 김경숙 김옥주
24구역: 김세영 이성화
32구역: 서영례 강인숙
34구역: 민현숙 유숙자
42구역: 송순금 강묘자
44구역: 최복순 이현자
52구역: 염번자 고남주

53구역: 오춘호 정영옥

54구역: 이명숙 정명숙

61구역: 정귀임 경순이

62구역: 이상순 김세순

63구역: 김옥자 김옥희

64구역: 김영애 김영례

(2) 목양 활동

해마다 봄과 가을에는 전체 가정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심방이 진행되었다. 대체적으로 봄 심방은 3~4월, 가을 심방은 10~11월에 집중되었다. 대심방 때는 심방대원을 편성하여 함께 심방하기도 했는데, 1993년 가을 심방에는 3~4명 규모로, 1995년 봄 심방에는 8명을 1조로 편성하였다. 이 시기 목양 활동에서 주시할 점은 새가족들에 대한 돌봄이다. 1992년 이후의 교회 수첩은 매월 넷째 주에 새신자모임을 갖는 것으로 정리화해 두었다. 실제로는 그보다 더 간헐적으로 행해졌지만, 새가족들의 정착과 성장에 많은 관심과 힘을 쏟았음을 보여준다. 1992년에는 새신자 양육을 담당하는 이들을 위한 학습이 1월 8~9일 오전, 7월 7~10일 오전으로 두 차례 잡혀 있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새신자부’(후에 새가족부로 명칭 변경)의 활동이다. 새신자부에 맡겨진 임무는 ‘교회에 새로 등록한 분들이 쉽게 교회에 정착하도록 돕고, 초신자의 신앙 성숙을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등록된 분들은 학습·세례를 받기 까지 보살피며 돕는’ 것이었다.

새신자부가 조직되기 이전 상황을 보면, 새로 등록한 성도들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간헐적으로 새로 등록한 성도들의 친교 모임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92년 12월 6일에는 새신자환영회를 갖고, 12월 12일에는 새신자수련회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일들을 전담할 부서로 새신자부가 조직된 것이었다. 새신자부는 제직회의 다른 부서들과 달리 담당교역자가 배치되었다. 1993년에는 박금녀 전도사, 1994년에는 서경자 전도사, 1995년에는 동선옥 전도사로 이어지다가 1996년 이후로는 서경자 전도사가 정년퇴임하던 2013년까지 담당하였다. 1993년 첫 조직 당시의 부장은 안송엽 장로였다(부원: 김옥자 김옥희 박정순 성경수 신향용 양지현 이선옥 조귀자 허명순).

1994년 7월까지의 초신자와 수평이동 교인을 나누어, 교육과 친교의 시간을 갖는 행사를 간헐적으로 진행하였다. 1994년 12월 4일의 ‘새로 등록된 성도들 모임’ 이후로는 ‘새로 등록된 신자들 모임’, ‘새가족 모임’ 등의 이름으로 초신자와 수평이동 교인을 구분하지 않고 연 2회 가량 새가족 교육과 친교의 시간을 마련하였다. 1997년 9월 7일 ‘새로 등록된 신자들과 사랑 나누기’ 행사부터는 새가족과 기존 교인들 간의 사귀기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당회원과 남선교회, 여전도회 회장들이 함께 참석하여 새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사귀기를 갖도록 하였다. 1999년에는 3월 7일, 6월 6일, 9월 5일, 12월 5일 총 4회의 ‘새가족 사랑 나눔’ 행사를 진행하였다. 한국교회 전반에서 진행되고 있던 전도율 둔화의 상황에서, 새가족들의 정착률을 높이고 교회의 공동체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었다.

(3) 양육 활동

1989년 4월 21일 문을 열었던 강림성서대학은 1991년 3월 10일 2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아쉽게도 종료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 신앙 성장을 돕기 위한 교육 활동은 계속되었다. 먼저 ‘새신자 성경공부’가 시작되었다. 이 성경공부는 신앙생활에 처음 입문한 이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과정으로, 12주 과정이었으며 매주 화요일 오후 2~3시에 진행되었다. 새신자 성경공부는 1991년 3월 10일 9명의 수료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91년 3월 12일, 1992년 6월 2일에 다시 시작한다는 기록이 남아있고, 1996년까지 이어졌다. 1992년 6월 7일 당회는 이 새신자 성경공부 12주를 이수한 이들은 학습 및 세례교육을 면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1993~1995년에는 매주 화요일 성경통신과 과정을 개설하였고, 1994~1995년에는 매주 화요일 오후에 성경 연구반을 열었다. 1996년에는 ‘구원의 확신반’, ‘칭지기 훈련반’, ‘영성훈련반’ 성경공부를 개설하였다.

매주 주보의 한 면은 ‘주간 성경공부’ 난으로 할애되었다. 읽을 본문과 질문을 실어, 각자 가정에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1991년 1월 6일 마가복음을 시작으로 하여 신약과 구약의 각 권을 1장씩 다루었다. 매주 화요일의 구역인



강림성서대학 졸업식(1991년 3월 10일)

도자 공부와 금요일의 구역예배 그리고 매주 수요일 수요성서학교가 신앙 양육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었음은 이전 시기와 다르지 않았다. 주보와 교회 수첩을 활용한 교육은 여전히 중요하게 활용되었다. 1997년 1월 19일에는 각 기관과 교회학교의 회계, 부회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 교육도 실시하였다.

3) 교회 밖을 향한 태도

안창엽 목사의 부임 초기부터 교회 간 연합 활동에 적극적이고, 민족과 사회의 문제에 대해 신앙적 관심을 기울이는 교육과 활동들이 이어져 왔다. 이 시기에도 다르지 않았다. 부활절 연합새벽기도회, 성탄절 연합찬양예배, 1992년의 8.15 기념 연합예배, 1992년 10월 18일의 호남선교 100주년 기념예배 등 전주시기독교연합회를

통한 지역교회의 연합 활동에 참여하였다. 주보를 통해 노회와 총회의 소식들을 꾸준히 소개하고, 노회 내 각 교회의 주요 소식들 역시 주보를 통해 전함으로써, 상회 및 다른 지교회들과의 코이노니아에도 소홀하지 않는 모습이였다. 총회 창립 80주년 기념주일(1992년 9월 6일), 한국교회 연합주일(1992년 9월 13일) 예배를 통해 연합의 정신을 복돋기도 하였다. 전북노회 정기노회를 비롯하여 장청 연합회 활동 등을 위해 교회 공간을 내어주는 일에도 적극적이였다. 1993년 1월 18~19일 장청 전주시 연합수련회, 1993년 4월 13~15일 전북노회 정기노회, 1994년 1월 20~22일 장청 전북노회 연합수련회, 1994년 6월 23~25일 전북노회 중·고등부 연합회 교사 수련회, 1995년 장청 전주동시찰 연합회, 1996년 장청 헌신예배, 1998년 5월 호남지역 평신도 대회, 1998년 9월 7일 전북신학원 개원예배, 1999년 7월 15일 전주근로자선교상담소 1주년 행사 등이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민족과 사회의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남북문제와 관련해서는, 1992년부터 남북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을 지키고 남북교회 공동기도문을 사용하였다. 남북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은 1988년 11월 23~25일 WCC 주선으로 스위스 글리온에서 만난 남한과 북한교회 대표들이 해마다 8.15 직전 주일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로 지키기로 합의하면서 1989년부터 시작된 바 있었다. 1994년과 1995년에는 평화통일 회년 운동과 독일 통일의 발걸음을 선도하였던 동·서독 교회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문제를 교회의 선교적 과제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고양에 따라 1999년에 이르러서는 6.25가 들어간 주간을 ‘민족 화해의 날 공동기도 주간’으로 지키는 데까지 나아갔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구체적 실천의 길로는 남북나눔 운동을 따라 1996년부터 북한동포돕기 헌금을 실시하고, 청년문화제를 통해서도 북한동포돕기 운동에 참여하였다.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체결을 계기로 당면하게 된 농촌의 위기 문제에 대해서는 총회의 ‘농어촌살리기 운동’을 소개하고, 농어촌살리기 기도주일을 지키는 등 주의를 환기하고(1994년 1월 10일), “우루과이 라운드와 농촌교회”를 주제로 특강도 진행하였다(1994년 2월 6일, 강사 심상봉 목사). 청년문화제를 통해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

고 청년들의 농촌봉사 활동과 농촌선교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농촌교회들과의 협력 활동 등이 함께 동반되었다. 새롭게 시작되는 지방자치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1992년 6월 14일은 환경주일로 지키면서 후보에 환경문제를 특집으로 소개하였다. 이러한 일들에 대한 참여의 신앙적 의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후보를 통해 ‘사회 선교’의 개념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지역사랑위원회 등을 통해 진행된 지역사회 봉사 활동들은 사회 문제에 관한 관심을 구체적이고도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드러낸 것이었다.